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399호

Wednesday, October 8 2025 A

메디케어파트C 혜택확줄어든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중단 정부 예산지원 축소 원인

시니어 대상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 그램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 트 C)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 삭감과 의료비 상승 등 을 이유로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축소 방침을 잇따라 밝히면서 한인 시 니어들 사이에서도 플랜 변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내년부터 전국 109개 카운티에서 파트 C 플랜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 다. 이어 CVS 산하 에트나보험(100개 카운티)과 휴매나(2개주) 등도 파트 C 제공 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프리 메라 블루크로스, 블루크로스&블루 쉴드 캔자스시티, 하버드 필그림 헬스 케어 등은 이미 파트 C 프로그램을 전 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바비 헌터 정부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는 "2023 년과 비교해 내년 정부 자금 지원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보험금 지급 규제로 인해 내년 보험 수익이 40억 달러가량 줄어들 수 있어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트 C 플랜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 처방약을 포함해 식료품,

교통, 웰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 이 제공돼 한인 시니어들의 가입률도 높은 편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 (CMS)에 따르면 이번 축소로 인해 가 입자 순위 기준으로 상위 3대 보험사 인 휴매나(50만 명), 에트나(45만 명), 유나이티드헬스케어(25만 명) 등 약 120만 명의 파트 C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LA카운티와 같은 대 도시보다 농촌 등 교외 지역을 중심으 로 먼저 시행된다. 보험업계의 축소 움 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시니어 인구 증 가와 맞물려 향후 의료 보장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 는 파트 C 관련 치과 혜택 축소는 물 론, 500달러 상당의 추가 혜택인 플렉 스카드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클라라 보험의 클라라 안 대표는 "보험사 10곳 중 8~9곳은 이미 혜택을 줄이는 추세"라며 "예전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던 식료품 구입 혜택이 이제 는 지병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되고, 새 롭게 본인 부담금까지 생기면서 시니어 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 까지 진행되는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 간에 파트 C 가입자들은 개인 상황에 맞춰 플랜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송윤서 기자

▶ 인사 발령 ◀ 홍알벗기자를 편집국장에 보임함.

트럼프 '중동 평화협정 체결' 시간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가자지구 평화 협정 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 워졌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평화를 가 져올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했지만, 최종까지는 걸림돌이 있어 귀 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또 다른 전쟁을 끝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은 모 든 아랍 국가들과 무슬림 국가들과 함 께 하고 있다"고 평화론에 낙관적인 면 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번 합의는 매우 구체적인 동시에 가자 지구를 넘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이번 합의가

성사된다면, 일곱 번의 전쟁을 해결한 셈이 된다"면서, 중동지역에서 3000년 동안 전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지적

직전 인도와 파키스탄 간 평화 협정 을 성사시킨 업적을 자랑스럽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것은 아마도 역대 최고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어 눈 길을 끌었다. 김성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손가락질·오해 받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때로는 간과 쓸개 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 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 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이튿날인 7일 오 전 인스타그램과 엑스(X) 계정을 통 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 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 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 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 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 다"며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 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 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추석 명절 인사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SNS]

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 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 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 4일 추 석 인사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복을 차려 입은 사진도 여러 장 게재했다.

홍주희 기자

버지니아 페어팩스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저회(의장 제프 맥케이)는 7일 개인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연장으로 주민들은 이자나 연체 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수퍼바이 는데, 당초 10월6일에서 11월5일로 한 달 미뤄졌다.

연장 이유는 연방 정부 폐쇄 조치에 따른 것이다.

맥케이 의장은 "올들어 많은 주민들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

실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 연방 정 부 셧다운으로 인해 상당수 직원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버지니아 주법은 이자와 연체료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수퍼 바이저회는 납부 기한을 조정할 권한









Annandale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 말피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MENN 301.792.5615 H-Mart 4

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기자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엘리콧시티 교통사고|상해전문병원



모케리 적추병원

목·허리통증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아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함께합니다



원장 Dr. 김동국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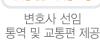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i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한강벨트 아파트 산 미국인 중국인은 이 동네 몰렸다

미국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가 6000 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인 집주인 60% 이상은 '한강 벨트'인 강 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택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해 말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 파트는 5678채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1028채, 서초 742채, 송파 458채 등 강남 3구에만 222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미국인에 이어 2위를 차지 했지만, 지역은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은 구로 610채, 영등포구 284채, 동대문구 150채에 집중돼 있었다. 강남 권은 159채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 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 으로 외국인 아파트 보유가 많았다.



정 의원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 석에 근거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 유가 "강남 고가주택 위주의 투자형과 구로 등 실거주 수요 거래로 이원화되 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가인 한강벨트 소유 외국인 상당

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지난 8월 아파트 편법 취득 외국인 49명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였다. 김철웅 기자

트럼프·룰라통화 미국·브라질해빙모드

대면회담 합의, 관세철회 요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 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6일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안에 대면 회담 을 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 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 룰 라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며 "많은 것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와 무역에 집중됐다"고 밝 혔다. 이어 "우리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 기로 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브라질 과미국양쪽에서 만나기로했다"고말 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과의) 통화는 즐 거웠고, 우리 두 나라는 매우 잘 지내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질 대통령실도 보도자료 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며 "룰라 대통령은 이번 접촉을 서방에 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 간 201년 간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 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가진 조 우에서의 "좋은 인상"을 회상한 룰라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서 브라질이 상 품·서비스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중 하나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한 40% 추가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으 로나타났다.

미주 대륙 두 대국인 미국과 브라질 간 관계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사건 재판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정 간섭 논란속에 극도로 악화했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 달 브라질 벨렝 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트럼프 대통령 을 초청했으며, 방미 의향도 밝혔다고

여당프리미엄강원…"승률 40%" 국힘도 벼른다

이번에도 '여당 프리미엄'이 통할까. 강 원도민들은 최근 치러진 4~5차례의 전 국 단위 선거에서 줄곧 집권당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22대 총선 때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전체 8석 가운데 6곳을 차 지하고, 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서 전승을 거둔 게 대표적 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 원지사가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 2년차 였던 2018년 지방선거 승리자는 더불어 민주당소속 최문순전 지사였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강원 지역 탈환을 벼르고 있다. 강 원 지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권성 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권 핵심 라인이 강원 지역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아 비상계엄 심판론이 크다"며 "김 지사도 명태균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 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1기 참모인 우 상호 정무수석이 당내 유력한 강원지 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인물 기대감도 삭지 않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강원도를 '보수 텃밭'으로 분류한다. 현역 김 지사가 지 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춘천 타운 홀미팅에서 발언권 논란으로 주목받으 며 재선 레이스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 힘 전략통 의원은 "강원은 선거 때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의 정서가 별개로 움직인다"이라며 "특히 영동은 보수 텃밭이라 승률이 40%는 된다"고말했다.

김 지사는 춘천이, 우 수석은 철원이 고향이다. 현재 여야 주력 후보로 꼽히 는 두 사람 모두 영서 지역에 연고를 두 고 있어, 이번에도 영동 표심의 향배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모두권의원구속후지역분위기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원과 반대로 제주는 무소속 이변 이 잦은 지역이다. 2006년 특별자치 도 승격 후 5번의 제주지사 선거 중 3 번이 무소속 후보 승리였다. 전직 의원 은 "제주 표심은 '육지' 판세와 별개로 움직인다"며 "최근 20년간 지방선거에 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 서울시장과 제주지사가 한 정당에 서 동시에 나온 일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된 2014년·2018년 지선 때 원희룡 제주 지사가 국민의힘·무소속으로 승리했 고, 직전 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 당적이 다른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 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오 지사와 문대림 위 성곤 국회의원, 송재호 전 국회의원 등 이 자천타천 제주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오 지사가 비명계로 분류되 고 있어, 이재명 정부 들어 치르는 지 방선거 경선이 치열할 것이라는 게 당 내 대체적 전망이다. 민주당의 호남 의원은 "제주 지역 정서상 현역 지사 를 경선에서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 며 "현역 지사 프리미엄이 얼마나 작용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제주에 연고가 있는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장성철 국민의힘 전 도당위원장이 출

"실용외교 근간 한미동맹… 굳건히 발전시킬 것"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취임식

강경화 신임 주미 한국대사는 6일 "실 용외교의 근간에는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 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강 대사 는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한 취임사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민 주주의와 상식, 실용주의를 통해 국민

삼는 '국민 주권 정부'"라며 "이러한 국 정 철학은 외교에서도 이어진다"고 말 했다. 이어 강 대사는 "전 세계적인 복 합도전 요인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국 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민하게 대응 해 나갈 것"이라며 실용외교의 근간에 는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지난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날 오 전 미 국무부 모니카 크롤리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대

워싱턴 날씨 (°F) 12일(일) 68-53 🗭 9일(목) 63-42 G 10일(금) 67-48 13일(월) 70-54 10월 8일(수)68-45 14일(화) 71-55 11일(토) 70-53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알링턴 콘도 \$2,100 차고 1, 방 1, 화 1

매나세스 파크시티 **S3.000** 차고 2, 방 3, 화 2.2

SALE (독점)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차고 2, 방 3, 화 3½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 폭행 / 아동학대

■ 기물파손 ■ 마약

■ 절도 / 횡령

■ 음주운전 / 교통위반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영사법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www.davidmarkslaw.com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국어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중앙일보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종합** 🔷

'하나되게 하소서(United Us)' 제20주년 한미국가조찬기도회

한국과 미국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한미국가조찬기도회(고문 류응렬, 회장 정승욱, 이사장 서옥자, 준비위원장 윤필홍)가 20주년을 맞아 '하나되게 하소서(United Us)'라는 주제로 7일, 버지니아 올네이션스 교회(담임목사 오건묵)에서 열렸다.

정승욱 회장은 "기도회 주제처럼 하나됨이 절실하다"면서 "한미 양국이 무역협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 지만 우리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 님의 영원한 진리에 바탕을 두고 단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옥자 이사장 은 "전세계적으로 갈등이 고조돼 전 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때에, 위기와 증 오를 넘어서기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 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린티아 분(수도권 국가 기도의 날 의장) 박사가 기도한 후, 올네이션스 교회의 김애나, 조윤하어린이가 구약(시편 133:1-3), 신약(요한복음 17:21-23) 성경구절을 읽었다.

미국 및 한국 국가 제창에 이어 주미 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와 백악관 신앙 기반 이웃 협업담당 에봇 코흘러가 각 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축하 메세지를 대독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주요인사들이 대 거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제임스 워킨 쇼우(민주, VA11지구) 연방하원의원 은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경제, 문화, 군사, 외교적 동맹이며, 미국의 6번째 교역국이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 동맹"이라며 "우리 지역구의 한인을 비롯한 모든 한인들이 다양성을 더하며 미국에 헌신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앤디 김(민주, 뉴저지) 연방상원의 원(대독 제임스 피셔)은 "한인들은 미 국 전체적으로 너무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공과 발전을 이뤄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응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목사는 이집트 개신교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를 방문했던 일화를 나누며 "200여명의 이집트 목사들에게 한국의 개혁신앙과 새벽기도의 영성에 대해 전하면서 기도의 가르침과 공감했던 일을 잊지 못한다"면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주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의 기조연설은 조디 하 이스(Jody Hice) 목사가 맡았다. 하 이스 목사는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 (Family Research Council) 선임 펠 로우로,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으로 8년간 재직한 바 있다.

조지아 출신인 그는 애즈버리 칼리 지와 사우스웨스턴 밥티스트 신학대



한국과 미국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한미국가조찬기도회가 20주년을 맞아 버지니아 올네이션스 교회(담임목사 오건묵)에서 열렸다.

학, 루더 라이스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25년간 목회했다. 또한 전국 400여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송출되는 보수 토크쇼'더 조디 하이스 쇼(The Jody Hice Show)'를 11년간 진행했다. 의회에서는 정부감시위원회와 천연자원위원회등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국가안보소위원회와 정부운영소위원회 최고위직가사로도활약했다.

박주용(3대 회장) 장로의 소개로 연 단에 오른 하이스 목사는 "우리는 하 나님의 가호 아래 한 가족이며, 한 가 족이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단결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 "기도 는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격려하게 만 드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린 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해 "신체의 일부 가 고통받으면 온 몸이 고통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 가 기뻐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하이 스 목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필요를 알기에 서로를 위해 기 도하는 정성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기선 소프라노의 특송 무대 후, 손 기성 목사(워싱턴그레이스장로교회) 의 봉헌 기도가 이어졌다. 이어 안지웅 목사(새소망교회) 주도로 진행된 합심 기도 순서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지도 자들을 위해'(김대영 목사, 휄로십 교 회), '한국 대통령과 북한을 위해'(수 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세계선 교와 박해 받는 자들을 위해'(아킨타 요 엠마뉴엘 목사, GRA 미션스), '젊 은세대와 미래 리더를 위해'(오건묵 목 사, 올네이션스 교회)등의 기도가 계

이어 박상근(5대 회장) 장로가 공지 사항을 전했으며, 송제오 목사의 조찬 기도와 함께 류응렬 목사의 축도로 기 도회가 마무리됐다.

김윤미 기자

'한글, 세계를 열다!' 제579돌 기념행사 성료

버지니아 맥클린한국학교 추석 전통문화 체험행사도

버지니아 맥클린한국학교(교장 이은 애)는 제579돌 한글날(9일)을 맞아 학교 실내외에서 '한글, 세계를 열다!'라는 주제로 한글날 기념식과 추석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지난 4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 학년의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알차게 진행됐다.

한글날과 관련된 행사에서 김복화 교사는 학생들에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쉽고 흥 미롭게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김 교사는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되었 으며, 한글은 배우기가 쉬울뿐만 아니 라 체계적인 문자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 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 며, 그 이름 속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한글날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추석 전통문화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송편 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강강술래 등 전통놀이를 즐기며 고국 의 정을 느꼈다.

한편, 이은애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



맥클린한국학교가 4일 한글날과 추석을 맞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 체험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이 늘낄수 있자 당심과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깊 전했다. 문의 5

이 늘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문의 571-235-8997. 김성한기자













제12회 메릴랜드 엑스포, 한인 축제 자리매김

실버스프링 워싱턴 스펜서빌 한인교 회에서 지난 9월 28일, 제12회 메릴랜 드 엑스포가 한인사회와 지역 주민들 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 행사는 '건강과 사회복지 한 곳 에서'라는 주제로, 전문 의료 상담부터 한국 전통문화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단순 한 전시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삶 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자리 였다"며 준비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건강 부문에서는 삼육서울병원 이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콜롬비아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박선 우 박사와 심장 전문의 한지우 박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참가자들에게 큰 신 뢰를 주었다.

치과 상담은 이봉주 박사, 피부·성형 상담은 김대호 박사가 맡아 높은 관심 을 받았다. 또한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버지니아 한의대 이요나 교수와 인턴 학생들이 침·이침 시술을 진행했으며, 샬롬 한방의 박순식 박사와 박석 한의 원의 박석 박사도 부스를 운영해 큰 호 응을 얻었다.

척추·신경 상담은 '편한 나라'의 민 혁기 박사와 '베스트카이로프랙터' 류 상균 박사가 맡아 참가자들의 큰 관심

이번 행사에는 워싱턴 가족상담소 김천식 박사도 처음 참여했다. 그는 "교 인들과 청년, 아이들까지 함께 어울리 며 봉사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이렇 게 큰 행사인 줄 몰랐는데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엑스포는 메릴랜드 지역을 넘

어, 오는 11월 1일 텍사스 오스틴 지역 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 측은 "더 많은 한인들이 건강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는 교회 홍보부 가 여권 사진 및 장수사진 무료 촬영 서 비스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모든 참가자에게 생활

용품 선물이 증정되었고, 경품 추첨을 통해 1.2등 당첨자에게는 삼육서울병 원·삼육부산병원 건강검진권이 주어 김윤미 기자



제12회 메릴랜드 엑스포가 '건강과 사회복지 한 곳에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가주 '테슬라 보험' 제재 나섰다

보험국. 소비자 상대 부당 행위 조사 "혁신 이유로 소비자 권리 무시 책임"

가주보험국(CDI)이 테슬라 보험사 (Tesla Insurance Services, Inc.)를상 대로 강도 높은 제재에 들어갔다.

가주 내 주요 보험 정책 마련과 보험 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CDI는 지난 3일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보험금 지 급지연, 부당한 청구 거절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생긴 규제의 공 백, 기술 중심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보호 체계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 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면 서 이슈화 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

CDI는 이날 발표문에서 "테슬라 보 험이 수백 건의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 하고 개선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으 며,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했다"고 직

조사 결과, 테슬라 보험은 보험금 지 급 지연, 부당한 청구 거절, 조사 미비, 소비자 권리 고지 누락 등의 위법 행위 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와같은 행위가 단순한 행 정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소비 자 보호 절차'를 우회한 행위로 간주하 고있다.

CDI는 "법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 한 것은 신뢰성 결여이자 불법"이라며 최대 건당 1만 달러의 과징금과 면허 정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테슬라 보험은 2019년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 를 활용한 혁신적 보험"이라며 출범시

운전 습관, 속도, 급가속 등 차량 센 서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료를 산정하 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안전 운전 자는 낮은 보험료를 내는' 합리적 구조 지만, 문제는 보험업의 핵심인 '공정한 청구 처리와 손해 보상'이 기술적 효율 성에 가려졌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보험 모 델은 제조사-보험사 간 이해충돌을 내

포한다"고 지적한다. 즉, 사고 원인 조 사에서 차량 결함이 드러나면 제조사 로서의 책임이 커지는데, 동시에 보험 사로서는 그 결함을 축소하거나 소비 자 보상을 늦출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 다. CDI의 이번 제재는 바로 그 이해상 충 구조가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 다는 경고 신호다.

테슬라 보험은 '보험료 절감'과 '자 동차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내세워 빠 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 내 '인슈어테크(InsurTech)' 산업 전반 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신흥 보험업체들, 특히 AI 기반 리스크 분석이나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도입한 스타트업들에게도 직접 적인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는 "테슬라 사례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규제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보여준다" 고분석했다 최인성 기자



테슬라가 가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제재대상이 됐다. 지난 6 월에 텍사스에서 열린 테슬라 행사장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로이터]

스위프트 새앨범 상영회 첫날에만 1580만불 수익

'팝의 여제'로 인기 최정상을 누리고 있 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만든 영상을 극장에서 상영하는 이벤트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 4일 극장 체인 AMC 등에 따 르면 스위프트가 전날 발매한 새 앨범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을 홍보하는 89분 분량의 영 상 '쇼걸의 공식 발매 파티'가 전날 북미 3702개 극장에서 상영됐다.

지난 5일까지 주말 사흘간에만 진행 된 이 한정 이벤트에서는 앨범 수록곡 '오필리아의 운명' 뮤직비디오와 뮤비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영상, 수록곡들 에 대한 스위프트의 개인적인 생각 등을 담은내용이 상영됐다. 티켓 가격은 12달



지난 3일 뉴욕의 한 극장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제작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자 팬들이 몰리 고 있다. [로이터]

관람객들에게는 노래를 따라부르거 나 춤을 함께 추는 것이 권장됐으며, 스 위프트의 새 앨범 발매를 팬들이 함께 모여축하하는 '파티' 형태로 기획됐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이스위프트영상상영이벤트에팬들이 대거 몰리면서 첫날인 3일 하루에만 티 켓수입 1580만달러를 기록해 북미 박스 오피스흥행 1위를 차지했다.

개스값 크게 오를 듯 쉐브론 정유소 화재 여파

지난 3일 발생한 LA 인근 엘세군도 쉐 브론 정유소의 대형 화재로 남가주 지역 개스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ABC뉴스는당장은개스값에큰변화 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며칠 내로 갤런당 5~15센트의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고 전했다. 화재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개스 도매가격은 이미 올랐지만 소매가 격 인상까지는 며칠 걸릴 것이라는 분석

이다. 개스값 비교사이트 '개스버디'의 맷 맥클레인 분석가는 "화재 직후에는 갤런당 30~90센트까지도 폭등할 것으 로예상했지만피해가정유소남동구역 에서만발생해다행"이라고밝혔다.

6일 기준 남가주 지역 레귤러 개솔린 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LA 카운티 4.72 달러, 오렌지 카운티 4.69달러다. 정유소 부족에 대한 우려는 지난 5월에도 제기 된 바 있다. 일부 정유소의 폐쇄 방침으 로가주내정유규모가 21%나급감, 개 스가격이 최대 75% 급등할 것이라는 전 망도나왔다. 송영채 기자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폿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新地子动性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 센터빌 오피스 Accounting/ Bookkeeping (FT/ 유경험자)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한글 단어 '공간'과 '모임'을 영어 발음 그대로 표기해 브랜드에 의미를 부여한 카페 공간 전경(왼쪽)과 모임 커피.

한글, K-감성을전하다

한글날 기획 커지는 한글 파워

LA지역 한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브 랜드들이 한글을 단순히 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어가 가진 정 서와 의미를 영어로 옮겨 브랜드화 하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적 감성을 유지하면서 도 영어권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 가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자부심과 색다른 표현방식으로 다가오는 장점이 있다.

실버레이크에 자리한 카페 'Gonggan'은이름자체로철학을나 타냈다. 단순한 '스페이스(space)'가 아닌, 사람과 감정이 머무는 여백을 뜻하는 단어 '공간'을 그대로 영어 표 기로 옮겨 사용했다. 업체는 소개에 서 "삶의 빈 공간을 채우는 곳"이라 고 표현했다.

Gonggan·Ondo·Moim 음차 표기 한국적 정서·브랜드 철학 담아내 정체성 표출・고객 소통 도구 활용

표기로 담아내면서 오히려 외국인 고객들에게 브랜드 철학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 로 분석된다. 업체는 메뉴 역시 흑임 자라떼, 제주 녹차 등 한국적인 요소 가 가진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 가 가미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온도를 뜻하는 단어를 그대로 옮 긴 'Ondo Coffee'는 세련된 음차 표 기로 커피의 경험을 전달하는 데 집 중했다. 이름만으로 커피 한 잔이 주 는 온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 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Moim Coffee'는 한글 단어 '모임' 을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 커뮤 니티와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는 메 시지를 강조했다. 카페는 소개글에서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영어 커피를 만드는 이들부터 고객까지 함

께하는 문화적 공간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단순한 번역 대신 원어 발 음을 유지한 이름은 타인종 고객들 에게 이색적인 매력과 한국어 단어 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브랜드명 하 나로도 공간이 지닌 정체성과 철학 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글을 영어로 옮긴 브랜드 이름은 문화 간 소통의 창구이자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하 는 도구"라며 "LA의 카페와 소규모 브랜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한글의 깊은 의미를 알리고, 새로운 소비자 들과 교감하면서 한글의 문화적 가 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관세 폭탄 부메랑…물가 상승 가시화

업체 부담 소비자 전가↑

수프 캔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 는 다양한 수입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일 회 사들이 그간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소 진해버리고 관세에 따른 원가 상승 부 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고 보도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 데이 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에 대부분 수입 제품인 오디오 기기는 14%, 의류는 8%, 공구·하드웨어·부품 가격은 5% 상승했다.

전국소매협회(NRF)의 수석 이코노 미스트 마크 매슈스는 "최근 2년간 재 화(goods·'서비스'와 대조되는 의미에 서의 '재화') 인플레이션은 제로에 가 까웠다. 우리는 재화 인플레이션이 서 서히 오르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고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관세 율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8월 물가상승률이 2.9%에 그치는 등 아직은 우려보다 타격이 적었으나, 소비자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업 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의 시장조사기관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에 따르면 올해 4월 이래 주요 소매업체들은 티셔츠나 신 발등 '소프트라인' 상품 29종 중 11종, 자전거나 식기세척기 등 '하드라인' 상 품 18종 종 12종, 스포츠용품 16종 중 5

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 기관 소속 분석가인 조 펠드먼은 "관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격 인 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 다. 세계 최대의 가구제조업체인 '애슐 리 퍼니처'는 지난 5일부로 절반이 넘 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인상 폭 은 적게는 3.5%, 많게는 12%에 이른다 고 FT는 가구업계 소식지 '홈 뉴스 나 우'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파·의자 등 천 이나 가죽 등을 덧대거나 씌운 가구 (upholstered furniture)에 관세율 25%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지 난달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오토존'은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에 대해 50%의 수입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커 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또 강철 등에 대한 관세가 대폭 오르 면서 통조림 가격도 치솟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 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수입업자 들과 소매상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부 담 대부분을 져 왔다고 지난달 설명했 다. 씨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 스트 네이선 시츠는 지금까지 관세 부 담 중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율은 30% 내지 40%에 불과했고 약 3분의 2를 회 사들이 맡아 왔지만, 앞으로 몇 달만에 소비자 부담 비율이 약 60%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난주 고객들과의 전화회의 에서 전망했다.

법원 "오리건에 다른 주 방위군 투입도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 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 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 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 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 통 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 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 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는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 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주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 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이 투입됐고, 5일 추 가로 100명이 투입을 위해 이동했다. 법 원에 제출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의 공문을 보면 텍사스 주방위군 400 명도 오리건주·일리노이주 등에 투입 될 예정이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 통령의 지시로 약 2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장병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로 재배치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공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이미 투입된 주방위군은 원소속 주로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캘 리포니아에서 주방위군을 데려온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어제 발부한 가처분 명령을 직접 위배하지 않게 되나"라며 "당신들이 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있는 가"라고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인 들을 추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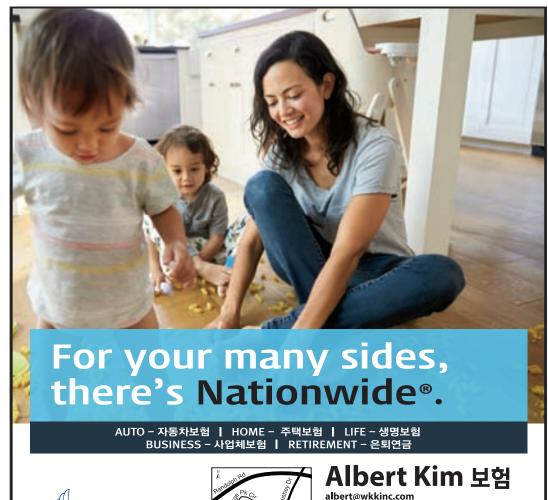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 - 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미국의 그림자 대통령"…트럼프 등에 올라탄 엘리슨 가문

오라클 공동 창업자 래리 엘리슨(81)에 대한 미 IT매체 와이어드의 평가다. 도 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미국 정계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그 림자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 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래리는 세계 2위 부자이자 트럼 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설 계자'로 꼽힌다. 오라클은 트럼프 대통 령이 추진 중인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 터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다. 또 중국 의 대형 영상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운 영권 이전 과정에서 알고리즘 재편을 맡게 되면서, 미국 내 1억 명 이상 사용 자의 데이터와 여론 흐름에서 중심 역 할을 맡게 됐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기 술을 넘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최고 경영자"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와이어 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 발 언을 인용해 "래리는 워싱턴 내부에서 '미국의 그림자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 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전했 다.

회사의 '뒷조사'를 위해 사설탐정을 고 용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주저하 지 않았던 기행 등으로 주목받았던 '실 리콘밸리의 악동' 시절을 뒤로하고 이 제 초고속으로 팽창하는 AI·데이터 사 업을 등에 업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 착 속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치·경제 적 권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래 리의 자산은 최근 12개월 동안 배로 늘 어 3700억 달러(약 520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한때 블룸버그 억만장자 자산 순위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영자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

그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42)도 미 디어 제국 확장의 선봉에 서며 두각을 드러냈다.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를 이끌던 그는 올해 파라마운트를 전격 인수해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를 출 범시켰다. 미 CBS 방송을 비롯해 직원 1만8000여 명을 거느린 초대형 미디어 기업을 이끌고 CNN 방송을 소유한 워 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까지 추진 중이다. 이런 엘리슨 부자의 승승장구 를 두고 BBC 등 주요 외신은 "일론 머 스크와 머독을 넘어서는 신흥 권력 가 래리는 과거 잦은 결혼과 이혼, 다른 문"이라고 집중 조명했다. 다만 틱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3일 미 국 워싱턴 백악 관의 타원형 사 무실에서 연설 하는 모습을 루 퍼트 머독과 래 리 엘리슨(맨오 른쪽)이 지켜보 고 있다.

[연합뉴스]

CBS, CNN이 한 가문 아래 놓일 경우, 엘리슨 부자가 미국 내 여론 형성과 뉴 스 소비의 핵심 통로를 지배하게 될 것 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보 진영과 언론 감시단체들은 엘 리슨 가문의 급격한 확장이 민주주의 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다. 미 미디어 감시단체 페어(FAIR)는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와 CBS, CNN

같은 유력 방송을 동시에 장악한다면 정부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고 민주주 의를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엘리슨의 인수합 병 과정에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거래 나 로비 개입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 수했다.

엘리슨 가문의 행보를 역사적 재벌 가와 비교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

는 시각도 존재한다. "밴더빌트가 철도 를, 록펠러가 석유를 장악했던 것처럼, 엘리슨 가문은 21세기 미국에서 '관심 과 데이터'를 독점하려 한다"(와이어 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엘리슨 가문이 미디어·AI·정치 권력의 중심으 로 평가되면서 새로운 파워 엘리트의 등장이 전망된다. 한지혜 기자

"양자컴퓨터 시대 열었다"…노벨 물리학상 받은 3인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현대 양자컴퓨 터 개발의 기초가 된 연구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존 클라크와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이론 수준에 머물던 양자역학 현상이 거시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 실을 실험으로 증명하면서 양자컴퓨 터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 일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 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를 발견한 공로가 있다"며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 상수여한다고발표했다

클라크(83·영국) 교수는 현재 버클 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 드보 레(72·프랑스) 교수는 예일대와 샌타 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 샌타바버라) 에, 마티니스(67·미국) 교수는 UC 샌타 바버라에 각각 재직 중이다. 수상자들 은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 4000만원)를 똑같이 나눠 받게 된다.

양자컴퓨터 시발점 된 연구

클라크 교수 등은 1984~1985년 '손 에 잡히는 크기의 전기 회로'에서도 양

자역학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최초 로 실험으로 증명했다. 이들의 실험 이 전까지 양자 현상은 극도로 작은 미시 세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이 들은 '조셉슨 접합'(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매우 얇은 절연층을 끼워 넣은 구조)을 이용한 전기 회로를 만들어 그 안의 전자가 마치 원자처럼 양자역학 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거시 세계에서도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난 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들의 연구 성과 로 양자 정보의 최소 단위인 '큐비트' 를 초전도 회로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구글과 IBM 등 빅테크가 개발 중인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직접적인 원천 기술 이라는 평가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업적을 '새로 운 규모에서 양자역학을 접하도록 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물리학 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양자역학적 효 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의 최대 크 기"라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들은 전기 회로로 실험해서 '양자역학 적 터널링'과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모두를손에 쥘수 있을 정도로 큰 시스



2025년 노벨물리학상은 '새로운 규모에서 양자역학을 연구'한 공로로 존 클라크, 미셸 데보레, 존 마티니스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사진 노벨위원회]

템에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현대 컴퓨터와 모든 전자 기기의 기반이 된 '트랜지스터'를 개발 해 기존의 진공관 시대를 끝낸 것과 비 교할 수 있다"며 "이들이 양자컴퓨터 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의 심할 여지가 없고, 언제든 노벨 물리학 상을 받을 수 있는 학자들로 거론돼 왔 다"고설명했다.

양자컴퓨터, 왜 중요한가

양자역학 원리에 기반한 양자컴퓨터 의 계산 수준은 기존 컴퓨터와 차원이 다르다. 기존 컴퓨터가 우주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 는 1초 만에 답을 내놓을 수 있다. 기존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 또는 1이라는 비트단위로처리하지만양자컴퓨터는 큐비트 단위를 사용해 정보를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로 문제를 수백, 수천 개씩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 어서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난치병 치 료, 노화 해결, 우주의 비밀 등을 푸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때문 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 적인 자금을 투입해 이를 개발하고 있

강광우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Main Office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Emmanuel 최고 시설 최대 규모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443-878-6611** Catonsville, MD 21228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10월가을맞이 풍성한혜택

기간: 9.27.2025-10.29.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10월 내 설치

타사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일시불 구매

^{최대}**25**%

\$80 상당 블렌더 증정

5년 이상 렌탈 시

최대 **3** 개월 렌탈비 할인

+ \$100 Gift Card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

자식용돈못받는 '씁쓸한황혼'…"자식보다 나라가 낫다" 왜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79)씨는 50대인 딸과 아들에게 따로 용돈을 받지 않는 다. 딸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은 하 던 사업이 기울어서 생활비를 줄 형편 이 안된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10년이 넘었다. 생활비가 빠듯해 최근 집을 줄여서 여 윳돈을 마련했다. 용돈은 주민센터에 서 하는 노인 일자리에 나가며 벌고 있 다. 박씨는 "아들도 애가 둘인데 아직 1 명은 학생이라 여전히 돈이 들어간다" 며 "나까지 부담을 줄 순 없고, 아직 건 강이 나쁘진 않아서 일하기는 괜찮다" 고말했다.

자녀 용돈으로 노후를 보내는 건 이 제 옛말이다. 통계가 말해준다. 6일 통 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4~6월(2분기)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구주 연령 기준)의 월평균 사 적이전소득은 1년 전 25만6953원보다 5.5% 줄어든 24만2937원이다. 동기 기 준 2021년 이후 최저치다. 2023년 29만 9982원으로 30만원에 육박했지만, 지

난해와 올해 2분기 연이어 감소하면서 4년래 가장 낮은 액수로 주저앉았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인척, 민간단체, 타인이 대가 없이 준돈을 뜻 한다. 고령 가구의 경우 자녀로부터 받 는 생활비 ·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한 다. 1980년만 해도 60세 이상 가구의 주소득원은 자녀 용돈 등 사적이전소 득으로, 전체 소득의 75.6%를 차지했 다. 하지만 '노인이 된 부모의 생계는 자 식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점차 옅어지 면서 이 비율은 1995년 56.6%, 2003년 31.4%로 내려갔다.

올 2분기엔 65세 이상 가구 기준 7.5%에 그쳤다. 청년층 취업난, 조기 은 퇴와 맞물려 스스로 가계를 꾸려가기 도 팍팍한 중년의 자녀 세대가 더는 부 모부양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는 의미다. 정부가 생계급여에 이어 의 료급여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제 도(자녀 소득·자산에 따라 부모 지원 감축)를 폐지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변 화한 세태를 반영해서다.



지난달 11일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자식 용돈'의 빈자리는 노인 스스로 번 돈(근로소득)과 각종 연금 · 복지급 여·정부지원금(공적이전소득)이 채우 고 있다. 올 2분기 65세 이상 가구의 소 득에서도 근로소득(31.0%)과 공적이 전소득(35.5%)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

적이전소득보다 훨씬 컸다.

요즘은 의학 발달로 고령에도 건강 을 유지하다 보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황혼의 노동'을 이어가 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청 집계 결과

를 보면 올 8월 65세 이상의 고용률(인 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41.1%로, 10년 전인 2015년 30.4%에서 크게 올랐다.

여기에 '자식보다 나라가 낫다'는 말 이 나올 정도로 고령층 가구를 대상으 로 한 정부 지원 늘고 있다.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24 년 2분기 2.8%(전년 대비) 증가한 데 올 2분기에도 4.2% 증가하며 115만2526원 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물론 그만 큼 자녀 부양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한 다는건 더는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 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며 "'연금 보릿 고개' 문제와 맞물려 고령 빈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를 공공일자리 · 복 지 지원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민간 고령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 조현숙 기자

실업급여 '불편한 진실'… 60대 가장 많이 타간다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별 비중 추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서 60대 비중이 꾸준히 늘어 10명 중 3명을 차 지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 이 일자리 시장에서도 적극 뛰어든 영 향이다. 하지만 구직급여 제도가 실직 자 재취업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고령층에 유리하게 작동한 결과란 분석도 있다.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 업급여 수급자 중 60대 비중은 2020 년 20.8%에서 올해 7월 28.9%로 늘어 났다. 이는 전체 수급자 가운데 약 10 명 중 3명이 60대라는 의미다. 2020년 과 2021년까지만 해도 50대 수급자가 더 많았으나, 이후 다른 연령대는 모두 비중이 줄어든 반면 60대만 꾸준히 증 가했다. 현재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40대는 같은 기간 19.8%에서 16.3%로 감소했다.

실업급여에서 60대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60대 인구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 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함께 높아진 영 향이 컸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는 지 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6월 기준 전 체 경제활동인구의 24.0%(720만 6000 명)를 차지했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 율은 49.4%에 이른다.

하지만 60대 수급자 증가의 배경에

200045 2021 2022 2023 2024

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맹점'도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급 횟수나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예 컨대 약 7개월간 일해도 4개월 동안 월 193만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자발적 실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지 만,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 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많 은 60대 수급이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 이 나온다. 은퇴 연령에 접어든 60대는 소수급 요건은 기여 기간과 함께 고려 정규직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 편으로는 이런 고용 시장 특성이 현행 제도와 맞물리면서 실업급여가 본래 의 취지와 달리 재취업 지원보다는 단 기 근로의 반복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 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60 대는 여성은 돌봄, 남성은 보안 경비 등 단기 계약이 많은 일자리에 종사해 실 업급여를 받기 쉬운 측면이 있어 보인 다"며 "60대 비중이 높아지는 건 이들 에 대한 생계 보전 효과는 있지만, 재취 업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 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복수급자로 분류해 관리 하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봐도 60대 비중은 지난 해 기준 36.3%(4만1000명)로, 전 연령 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실업급여가 본래 구직 기간 재취 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 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단기 근로와 휴직을 반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 동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 개편 필 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대 수급 기간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짧지만, 최 할 때 상당히 관대한 수준"이라고 지적 했다. 실제로 아무리 오래 일해도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안전망 기능은 미약한 반면, 180일만 근무해도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제도적 왜곡을 낳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재명 아들 군 면제" 대선 때 허위글 게시한 이수정 송치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사진) 당 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 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약 1주일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 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 했다. 그러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

통령의 아들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했

당시 이 당협위원 장은 게시물을 삭제 한 뒤 "온라인에 떠 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 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직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 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로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홍주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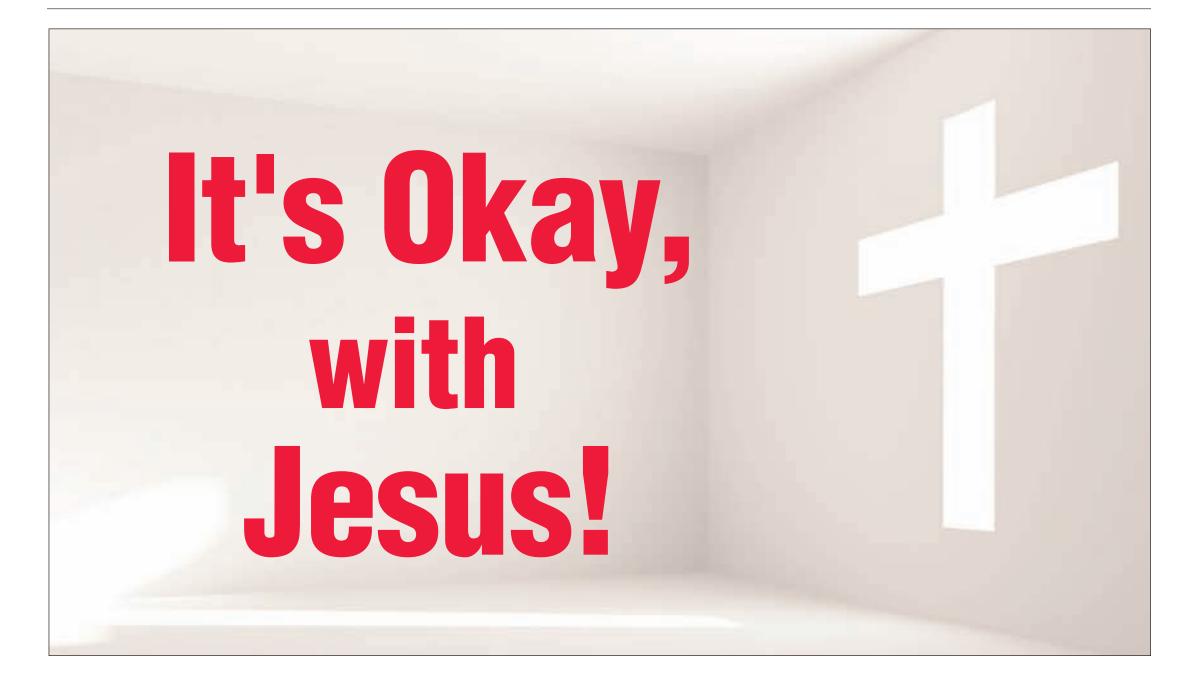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는 이들 4개 진료 파트에서 최다 방문 환자는 117만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이 국인 환자 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만여명의 70%가 피부과에 들렀다. 해 202개 국가에서 117만 467명이 왔다. 2023년보다 93.2% 증가했다. 일본 환자 가 44만1112명(37.7%)으로 가장 많다. 2023년에도 일본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일본 환자는 어떤 진료를 받 았을까. 피부과·성형외과·내과계통, 한 방의료기관을 많이 찾았다. 일본 환자

을 기록했다. 피부과를 찾은 일본 환자 는 30만 8116명이다. 전체 일본 환자 44

지난해 한국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44%가 일본인이기도 하다. 일 본 환자에게 피부과가 인기를 끄는 이 유는 레이저, 리프팅, 미백, 기미·잡티 제거 등 1~2시간에 끝나는 간단한 시 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 한데다 만족도가 높은 점도 요인이다.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201 Annandale, VA 22003

<mark>러스가 필요할땐?</mark>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VA <mark>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mark>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올해 마지막 단풍 여행~ 딕시스탬피드 디너쇼/ 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2박3일 10/24(금)-10/26(일) \$899

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까이서 만나는 야생동물의 세계!

당일투어 10/25(토) \$169

1차 11/13(목), 2차 11/22(토) *내형버스*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뉴욕의 크리스마스! 라디오시티

12/18(목)

Coming Soon!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모차르트의 선율, 마술피리

1차 12/14(일), 2차 12/20(토) Coming Soon!

한스와 골프투어 떠나요~

프 4라운딩 + 리조트 11/27(목)-11/30(일)

3박4일 \$879 【내형버스



3라운딩 + [[배본 온전

5박6일 2026년 1/22(목)-1/27(화) 항공포함 \$2,350 인솔자:세라 정 1/8(목),1/12(월) 4분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가격문의



따바콘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 생태공원 4박5일 11/26(수)-11/30(일)-마감임박 \$2,090 인솔자:세라정

5박6일 2/9(월)-2/14(토) 항공포함 \$2,190 인솔자:애나 김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루레이동굴 \$125 Ш): 당일투어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TJ: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목요일 출발 & 뉴욕 2박3일 <mark>10/30(목)</mark>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수요일 출발 & 뉴욕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월요일 출발 5박6일 <mark>11/3(월)</mark> \$1,350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C**마**길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여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 11/26(수)-11/30(일) 땡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2.090 항공포함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오만,사우디 아라비아<u>.카</u>닭 \$5,190 SMALL GROUP TO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 8박9일 오션뷰 \$1,340 **4자리 예약 가능**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옥

\$2,350 항공포함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3,590 재키 조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5박6일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2,190 항공포함 애나 김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죠앤 한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데이빗 한 \$4,190 02/23(월)-03/22(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20,500 재키 조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죠앤 한

일본+한국+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벗꽃축제 12박13일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죠앤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애나 김 11박12일 \$3,790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3,590 세라 정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죠앤 한 12박13일 \$3,690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재키 조 \$5,995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죠앤 한 06/15(월)-06/25(목)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 아일랜드 10박11일 \$6,695 재키 조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세라 정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재키 조 \$6,695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빅토리아 폭포,남아공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죠앤 한 08/15(토)-08/28(금) 그린랜드 + 아이슬랜드 13박14일 재키 조 \$12,990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5,995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7박8일 \$6,995 08/12(수)-08/18(화) 알라스카 애나 김 09/07(월)-09/16(수) 북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애나 김 09/17(목)-09/29(화) 발칸 일주 8개국 세라 정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애나 김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세라 정 5박6일 서부4대캐년 ШЬ

\$99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8박9일 \$1,54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석 이튿날 귀경길 정체

부산→서울 7시간 대구→서울6시간

추석 이튿날인 7일 오전 고속도로 곳 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 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부산 7시간, 울 산 6시간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50분, 강릉 2시간40 분, 대전 2시간20분으로 예상했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 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30 분, 울산 7시간10분, 대구 6시간30분, 목 포 6시간20분, 광주 5시간30분, 강릉 4 시간20분, 대전 3시간10분이다.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 정체는 낮 12 시~오후 1시,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 정 체는 오후 5시~6시 절정일 것으로 전



추석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 귀경 차량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망된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9~10시, 귀경 방향 정체는 다음 날 오전 2~3시 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교통량을 561

만대로 예상됐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 으로는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는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주희 기자

항공료또오르나

지속가능항공류 사용 속도 내는 정부, 업계 긴장

정부가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SAF) 사용을 항공사에 의무화하기 로 하면서 항공업계가 긴장하는 모습 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 형 항공사들은 이미 SAF를 적용한 실증 운항에 나섰지만, 저비용항공사 (LCC)들은 아직 뚜렷한 도입 계획조 차세우지 못한 채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SAF 혼합 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 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설 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 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SAF를 최소 1% 이상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이를 2030년까지 3~5%, 2035년 에는 최대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율적 시범 운항 단계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해 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 운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 탄소감죽 기순인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 럽연합(EU)과 주요 선진국들도 SAF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추세 로, 항공업계 전반에 '탄소중립' 전환 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대한항공·GS칼텍 스 바이오항공유 실증 운항기념식에서 실증 운 항을 위해 대한항공 보잉 777F 화물기에 바이 오항공유(SAF)가 급유되고 있다.

공이 이미 SAF 운항을 시작했다. 대한 항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로스 앤젤레스 노선에 국산 SAF를 적용했 으며, 아시아나는 2022년 파리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하네다, 유럽 출 발편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두 항공사 모두 공급 물량 부족과 높은 가격 부담 탓에 전 노선 확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AF는 현재 일반 항공유보다 2배 이상 비싸다. 대한항공이 SAF를 1% 혼합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약 400억~4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 비율이 3~5%, 10% 수준으로 올라가면 연간 수천억 원 단위의 고정비 증가가 불가 피하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LCC는

SAF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제 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 요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직 SAF 시범 운항은커녕 구체적인 도입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정유사와의 업 무협약(MOU) 체결 등은 있었지만, 실 질적인 계약이나 혼합 비율 설정은 미 정이다. 한 LCC 관계자는 "정유사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SAF를 구매하거나 적용할 여력이 없 다"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차액 보 전 같은 직접적인 지원 없이 정책을 밀 어붙인다면, 중소 항공사들에겐 도입 이 '환경 정책'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로다가올수있다"고우려했다.

SAF 도입으로 항공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해부터 '그린 운임'을 신설해 SAF 사용 비용과 탄소상쇄 비용을 항공권 에 포함시켜 판매 중이다. 유럽 내 일 부 저비용항공사들도 SAF 비용을 '환 경세' 또는 별도 요금 구조로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AF 혼합비율이 의무 화되면 항공권 가격 인상은 피하기 어 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LCC는 평균 항공운임이 낮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 SAF 비용을 자체 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 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고환 율·고유가·고금리 3중고에 놓인 LCC 입장에선 SAF가 '탄소중립 투자'라기 보다 '생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고말했다.

박영우 기자



지난 2일 경기 수원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변재우군이 화이트보드에 국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나온 문제를 풀고 있다. 변군의 티셔츠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네트워크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 'ethflow'가 적혀 있다. 김민상 기자

中독식뚫고금메달따냈다

'천재 삼부자' 놀라운 비결

삼부자(三父子)가 모두 올림피아드 대 회에서 수상한 이력을 가진 가족이 있 다. 아버지 변명광(52)씨는 1990년 수 학으로 국제 대회에서 은메달을, 작은 아들 변재우(16·경기과학고2)군도 지 난 7월 볼리비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 메달을 받았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변씨 는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통신 분야 소 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변군의 형(20)도 경기과학고 재 학 시절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에 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변군은 볼리비아 수크레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민규(서울과학고3)·이유 찬(경기과학고3)·정민찬(한국과학영 재교2)군과 함께 수상 직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받은 것은 한국이 1992년부터 국제 정보 올림피 아드에 참가한 이래 처음이었다. 최근 에 중국 학생들이 1~4위를 모두 차지 하는 등 독식하는 분위기라서 전원 수 상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볼리비아는 인천공항 출국 뒤 비행 기를 네 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이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5시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 제 6개를 이틀 동안 풀어야 했다. 중국 정보통신 기업 화웨이와 미국의 인공 지능(AI) 기업 오픈AI 등이 공식 후원

아버지 변씨는 최근 중앙일보와 만 나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 첫 날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뒤 휴대전화 통화 연 결이 어려웠다"며 "둘째 날 점수를 만 회하고 금메달이 확정된 뒤에야 전화 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같이 나온 변 군에게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를 화이트보드로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펜으로 금세 한바닥을 채웠다.

둘째 날 나온 첫 번째 문제로 기념품 가게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가격 변수 에 따라 정확한 양을 구매할 수 있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짜서 해결하는 문 제였다. 변군은 "단계별로 가격이 다른 기념품 구매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시 간이라는 변수까지 생각해 최적의 답 을 알아낼 수 있는 방정식을 짜야 했 다"고설명했다.

부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식탁 옆에 놓은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공부의 비 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처음에는 바둑 알이나 도형을 가지고 수학의 흥미를 가지게 한 뒤,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올 라간 뒤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 방 법을 서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됐다. 변씨는 "둘째 아이가 승부욕이 강해서 생각하지 못한 풀이 방법을 형 한테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군은 의대 진학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컴퓨터공학과로 진 학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거나 창업 을 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며 "의대 를 가려면 내신 성적이 좋거나 수학능 력시험 점수가 월등해야 하는데 올림 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 연 구에 들이는 시간이 많아 어렵다"고도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만나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준비했다. 정보 올림피 아드 국가 대표 학생들을 이끈 김성열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국제 문 제는 여러 개념을 혼재한 뒤 코딩으로 푸는 방식이라 아직도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도 풀지 못한다" 며 "코로나19이후 끊겼던 국내 대기업 후원이 다시 시작돼 학생들과 더욱 좋 은 환경에서 합숙을 통해 문제를 고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

김민상 기자





Alexandria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Woodbridge 타운홈

렌스가 있는 뒷마당, 3중 구소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허팅 & 에어컨 시스템







Reston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어메니티가 좋음















Alexandria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때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of the Early Incorporation of the Early

음주측정 '면허취소' …법원선 "무죄" 판결 나왔다, 왜

음주측정기 불대(빨대)를 재사용했다 는 이유로 면허취소 수준이던 운전자 가 무죄로 바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가 10회 이상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 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 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 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의 도로에서 운 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규정대로 A씨에게 생수로 입을 헹구도 록한 뒤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에 숨 을불어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가 의도적으로 입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회피했다. 결국 13차례 시도 만에 측정 이 이뤄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0.085%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일회용 불대로 여러 번불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불대에 남은 알코올 영향으로 실제보다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는 "1회당 1개의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측정 회 피를 지적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쳐 호흡을



음주운전 단속 현장.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음주 측정 1회당 불대 1개'는 바람을 제대로 넣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사용법대로 측정이 이뤄졌을 경우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 '불대 사용은 1회 사용 후 필히 폐기해야 한 다', '3차례 연속 측정에 실패할 경우 5 분 이상 기다렸다가 새 불대로 교환해 측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하면 알코올농도가 정 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3차례까지 시늉만하다 이후부터는 경찰 안내에 따라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며 "10차례가량 호흡을 넣는 과정에서 침이 측정기입구를 막아 음주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웅 기자

한소희, 이준석에 '좋아요' 눌렀다 취소…정치색 논란 일자 한 말

게시물은 1만개가 넘는 '좋아요'

배우 한소희(사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낸 행동이라는 해 석이 일자 한소희 측은 "단순 실수"라 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인생은 실전"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



에 대한 허위 루머를 퍼뜨린 가해자가 자필 반성문을 보내왔다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터무니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인생을 걸지 말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은 1만개가 넘는 '좋아 요'를 받았다. 7일에는 배우 한소희가 이 목록에 포함돼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통상 좋아요 버튼은 게시자에게 동 의한다는의미로 사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악성 루머 유 포를 경고하는 취지에 동의했을 것"이 라는 반응부터 "단순 실수를 확대 해 석하지 말자"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 고 있다. 한소희 소속사는 이날 "단순 한 실수였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 형다 앞서 지난해 3월 한소희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리며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한소희 측은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 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 간을 보내고 있다"며 "명예를 실추시 키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 응할 것"이라고 했었다.

김철웅 기자

"택배 왔어요" 문 열리자 강도 돌변

흉기들고돈빼앗은 50대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 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 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 (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79)씨를 흉기 로 협박하고 현금 64만 5000원을 빼앗 은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택배가 도착했다"며 B씨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강도로 돌변한 그는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했다.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 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주희 기자

육지와 연결된 섬인데…'도서산간' 배송비 추가하다 적발

육지와 연결돼 있어 배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섬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쇼핑몰 다수가 적발됐다. 현재 도 도서산간비 명목으로 추가 배송비 를 받고 있는 쿠팡의 경우 올해 안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주요 택배사, 쇼핑몰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 사했다.

그 결과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등 13개 회사가 부당하게 배송비를 추가로 부과해 온 사실이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부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 도서(육지와 교량·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를 동일하게 취급해 소비자들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내게 했다.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 록과 우편번호상 배송지가 일치하면



택배 물품을 실은 배가 섬에 정박하고 있다. 쇼핑몰 13개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추가 배송비를 부당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자동으로 요금이 늘어나게 한 것이다.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의 10개

시·군·구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편 이용료 등 추가 비용

공성위는 "배편 이용료 등 추가 비용 이 들지 않는데도 소비자에게 이에 해 당하는 것처럼 표시하면 전자상거래 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12곳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상태다. 쿠팡은 건물 관리번호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내 시정을 약속했다.

김철웅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중앙일보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기획

아마존, AI가만든 '피부결·주름개선' 상품문구더키웠다

성공 사례서 배우는 'AI 활용법'

전사적 프로젝트에 AI 정착하려면 핵심 프로세스부터 우선 적용해야 MS, 최대 수익원 MS Office에 도입

최근 국내의 한 기업은 생성형 인공 지능(genAI)을 사내 업무에 본격적 으로 도입했다. 보고서 초안 작성, 해 외 문서 번역, 아이디어 발굴까지 직 원들은 AI를 일상적인 도구처럼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 데이터 를 AI와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여전 히 큰 고민이 따른다. 기밀 자료가 외 부로 유출될 위험과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업은 검색증 강생성(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을 통해 내부 문서를 AI와 연결하려 했지만, 보안 리스크로 인해 전사적 적용은 주저하는 상황이 다. 무엇보다 이 기업은 이러한 AI 활용 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른 국내기업의 사례를 보자. 이기 업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AI 사용을 넘어 조직 차원의 AI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했다. AI 전담팀이 구성되고 전사적으로 AI 프로젝트가 실행되며 AI에이전트를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가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도와 달리 AI 팀은 점차 조직에서 고립되어 간다. 실무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실무팀은 현업에 쫓겨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조직원 모두가 AI의 향후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당장은 실험적 성격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AI 프로젝트는 점차 동력을 잃어 갔다.

아직은 AI 초기 단계라 엔비디아, 오 픈AI 등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 능활용 자체가 가장 큰 화두다. 그렇다 면 기업은 어떻게 AI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현재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도는 AI를 통한 개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다. AI 사용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회의록을 정리하거나 시장 조사 자료를 요약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은 RAG 방식을 활용해 내부 문서를 AI와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보안 문 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용은 조직 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 인 서울'행사. 아마존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고객들의 구매 전환율을 크게 키웠다.

AI 문화 확산 차원에서 주로 시도되는 단계다.

최고경영진 강력한 지원과 의지 중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기대했던 것처럼 AI를 통해 확보한 개인의 잉여 시간이 반드시 더 가치 있는 업무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 다. 따라서 AI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사실 생성형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적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AI를 통하여 기업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해외 선진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1~2년 내기업의 핵심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모델을활용해 기업 프로세스 핵심에 적용해야하며, 개인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기업차원의 전략적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생성하는 '환각 (hallucination)'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략적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최고경영진의 AI 이해 부족으로인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AI 팀이 일부상향식(Bottom-up)으로 프로젝트를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 이는 AI 에이전트 모델 구현의 기술적 문제나 AI 품질 문제 때문일 수도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조직의 문제를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

업 부서와의 협업, 프로세스 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역할 (R&R)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최고경영진의 지원과 의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경영진에서 선정해 전사적 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례처럼 전략적 접근 없이 AI 추진 조직만 구성해, 상 향식 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 식으로는 성공가능성이 작다.

아마존의 사례를 보자. 아마존은 AI를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핵심 영역인 상품 카탈로그 작성과 앱 내상품 정보 구성에 우선 활용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이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이자 가장 많은 자원이투입되는 영역이다. 아마존은 생성형 AI를 통해 상품 정보의 오류를 찾아내고, 신제품에 대한 상품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그 페이지의 효용을실함・검증한 뒤 피드백을 반영해 수정하는 과정을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가설을 세



아마존 고성장의 배경에는 '오픈AI' 등 AI를 이용한 혁신이 뒷받침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고, 어떤 상품 페이지 디자인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직접 실험할 수도 있다.

메타는 광고 추천 시스템에 AI 도입

그렇다면 아마존은 조직 문제와 품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마존은 전략적으로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를 AI 적용 후보로 선정하고 빠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조 직 구성원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 설명을 둘러 싼 실험에서 기존 설명은 기능과 이점 을 장황하게 나열했지만, Catalog AI 는 "피부결 개선, 수분 보충, 주름 완 화"라는 짧고 간결한 효능 중심 문구 를 제시했다. 사용자 집단을 나눠 효과 를 검증하는 A/B 테스트를 통해 고객 반응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추고 있었던 이 시스템은 실험 계획, 테스트, 결과 도출을 행하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이 간단한 문구가 오 히려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키웠다. 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분 야에서 성과를 보여 줌으로써 조직의 지속적 자원 확보와 AI 프로젝트의 동 력을 담보할 수 있었다.

아마존은 또한 품질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원칙을 세웠다. AI 출력의 신뢰도를 감사(Audit)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드레일(Guardrails)을 설치해 잘못된 수치를 걸러내거나 AI 간상호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효과성 테스트를 모든 출력물에 적용해 실제고객행동을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아

마존은 과거 연간 수천 건에 불과하던 실험을 매년 수천만 건 규모로 확장할 수 있었고, 일부 제안은 이미 매출에 직 접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접기어하고 있다고 모고되고 있다 MS와 메타 역시 핵심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 성과를 내고 있다. MS는 가장 큰 수익원인 MS Office에 코파일 럿(Copilot)을 적용해 단기간에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1억 명 이상으 로 끌어올렸다. 메타는 핵심 프로세스 인 광고 추천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광 고 단가와 클릭률을 모두 높였다. 더 나 아가 광고 제작과 타깃팅(Targeting) 등 광고 전 과정을 AI 에이전트 기반으 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례들은 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순히 생성형 AI를 도입했다고 해서 경쟁 우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AI를 전사적 프로세스에 정착시키려면 반드시 성과를 낼수 있는 핵심 프로세스에 우선 적용해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품질 관리시스템이함께 구축되어야한다. 특히 최고경영진이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할 것인가'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명확히하지 않으면 AI는 단편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즉, 기술적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 은 조직 차원의 의지와 품질 관리의 철 학이다.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 고 있지만, 그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아마존, MS, 메타가 보 여 준 실질적 성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 여 주는 좋은 교훈이다.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말잔치 앞서선 안된다

한국 안보를 둘러싼 개념과 수사가 난 무한다. 일종의 말 잔치가 앞서다 보니 정작 핵심 위협은 흐려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 핵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 된 위협이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 하지 않다. 북한 핵이 한국에 끼치는 위 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 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 발언에서 북한 핵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체 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 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 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 라며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 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했 다. 미국이 당장 북한과 대화를 시작 하지 않으면 본토가 위협에 처할 수 있 고, 미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테 러 세력의 수중에 북한 핵이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런 북한의 행 동을 중단시킬 역량과 의지가 있으니 빨리 북한과 협상에 나서라는 주문인 셈이다.

북한 핵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급한 불

그런데 정작 실존적인 북한의 위협 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한국 안보에 대한 위험성은 빠졌다. 이 대통령의 연 설은 여전히 미지수인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만 강조한 것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의 미 국 타격 능력이 마지막 개발 단계에 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아직 여유가 있 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핵 능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핵 무기연구소 등 핵관련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생산과 관련해 지시하고 있다.

강화와 공격적인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7일 '미국 을 위한 아이언돔(The Iron Dome for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 은 미국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탄도미 사일, 극초음속·첨단 순항미사일 등 신 형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 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 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우주 기반의 요격기를 비롯한 지상과 마지막 단계 요격 능력, 발사 초기 요격 능력, 발사 이전 억제와 파괴 능력 등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 과정이 망라돼 있다. 더 불어 미국의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 태 세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과 작전 협조 도 요구한다.

트럼프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가 '골든 돔'이라 고 명명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미사 일 방어체계가 구축 중에 있는 건 사실 이다. 중국을 상대로 이런 미국의 첨단 방어 능력 향상은 북한의 ICBM에 대 해서도 충분한 대응 능력이 된다고 판 단하는게 합리적이다.

반면, 한국에 대한 북한 위협은 심 각한 수준이다. 2019년 5월 북·미 협상 이 한창 진행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던 그 시기 북한은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 거리 690km의 KN-23 미사일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했다고 주 장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속 도를 냈고, 지난 5월 미 의회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미사일을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충분히 시험

했고, 실전에 배치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태다. 미국에 다소 여유가 있다 면 한국은 발등의 불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한국이 노출 된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 장 억제 공약을 받아 냈어야 한다. 적어 도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발 언과 정부 공식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 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하는 수 준정도라도 필요했다. 북·미 협상이 필 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협상의 목 표는 북한 핵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다. 협상을 위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3단계 비핵화 접 근법과 관련해 사용하는 용어가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최초 동결(freeze)→축소→폐 기를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은 타임지 와 인터뷰에서 동결 대신 중단(stop)이 라고 수정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 실장은 "중단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과 체결한 합의, 예컨데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동결이라는 표 현을 사용했다. 비핵화 과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중단이 아니고 동결 이다. 동결은 대상을 특정하고 이행 여 부까지 확인하는 공식 절차지만, 중단 은 모호한 개념이다. 생산만 멈추는 것 인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 지 않는다고 말만 하는 것인지 불명확 하다.

비핵화 혼선 자초한 정부

문제는 이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 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에 대한 대 가로 보상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중단 의 구체적인 정의나 검증 없이 대북 제 재 해제의 필요성만 강조한 것으로 보 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비핵화 협상 초기에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되고, 경험상 북한 은 이득만 챙기고 비핵화 진전은 빛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간 북한 과 협상 이행은 항상 검증에 북한이 제 대로 응하지 않아서 결렬이 반복되곤 했다.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을 노골 적으로 거부했다. "한국이 추파를 던 지면서" 단계적 비핵화론을 들고 나왔 지만, 결국 자신들의 "무장해제를 꿈 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 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 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밝힌 엔 드(END) 구상 역시 모호하긴 마찬가 지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 zation)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엔 드 구상은 위 실장의 부인에도 우선순 위와 선후 관계가 있어 보인다. 교류가 이뤄져야 관계 정상화가 된다는 게 상 식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언급은 관계 정상화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한 다는 순서로 비치는 것이다.

정부 비핵화 원칙과 큰 그림 필요

또 위 실장이 엔드 구상을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 조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싱가포르 합의는 ①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②한 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 ③한반도 비 핵화가 핵심 내용이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를 요구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7월 7일)로 싱가포르 합의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강도적인 비 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 고 북한은 순서를 정하고 있다는 방증 이다. 한 미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원하 지만 북한은 비핵화 문제가 빠져야 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한국은 북 한의 핵 인질이 돼 안보는 더 위태로워 질수밖에 없다.

이런 혼란을 없애려면 정부가 정확 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완성하는 게 급 선무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인수위원 회도 없이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기 에 핵심 정책을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원칙과 개념을 조각조각 밝히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통해 대북·통일·비핵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미국과의 공조 또한 중요하다. 트럼 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 만 아직 공식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 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한 미의 교집 합 영역이기에 양국의 대북 및 비핵화 정책이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 한국이 주장하는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미국 이 다른 의견을 보인다면 실효성은 떨 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한 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구호가 아니 라 당장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 응할 수 있는 방안과 비핵화 원칙, 명료 한 전략이 앞서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통해 확장 억제를 현실화하고, '중단'이 아닌 '동결과 검증'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 한 처방이다.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우리말 바루기

'추석'을나타내는말

올해 추석 연휴는 8일까지 짧게봐도 나흘이 라고 한다. 매년 추석을 지내면서도 막상 추 석이 어떤 날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을 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 다. '추석(秋夕)'은 음력 8월 보름날로, 신라 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예로 부터 추석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 의 음식을 장만해 차례를 지냈다.

가배는 신라 유리왕 때 궁중에서 하던 놀 이를 일컫는다.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4일 까지 나라 안의 여자들을 모아 놓고 두 편 으로 갈라 왕녀 둘이 한 편씩을 거느리고 밤 낮으로 길쌈을 해 그 많고 적음을 견줘 진 편에서 음식을 내고 춤과 노래 및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고 전해진다.

추석을 순우리말로 '한가위'라고도 하는 데, 이는 추석이 가배에서 유래했음을 보여 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가배'는 '가운데'를 뜻하는 우리말 '가부·가뷔'를 한자로 옮긴 것(음역)으로, '가부·가뷔'가 변해 '가위'가 됐고, '중심'이나 '으뜸'의 뜻을 지닌 '한'과 결합해 '한가위'가 됐다고 한다.

추석을 '중추절(仲秋節·음력 8월에 있 는 명절)' '중추가절(仲秋佳節·음력 8월 보 름의 좋은 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가을을 초추·중추·종추 세 달로 나누어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 름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은퇴에도 나만의 티샷이 있다

골퍼라면 누구나 골프에 대한 자신만의 매력 포 인트가 있다. 스코어를 낮추기 위해 차곡차곡 노 력해가는 것도 즐겁고 의미 있지만, 어떤 이들은 벗과 4시간 이상 대화하며 우애를 나누고, 새로운 동반자와 서로를 알아가는 매력에 골프를 시작했 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말골퍼라면 프로 골퍼를 따라 하 는 전형적인 스윙이나 공략법도 중요하지만, 바 로 자신만의 독특한 준비 동작, 스윙 예열, 퍼팅 라인 읽기 노하우 등이 골프의 매력이라는 데 동 의할 것이다.

결국 모든 골퍼가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 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체 형과 스타일에 맞춰 습득한 스윙과 스코어 관리 방식이 필드에서 의미 있는 스코어로 돌아온다 면 그 뿌듯함은 매우 클 것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 가 해야 하는 '은퇴'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인들이 자주 접하는 신문, 방송, 블로그와 SNS 등을 보 다 보면 마냥 재단된 은퇴 시기와 방식을 소개하 는 경우를 보게 된다. 소셜연금 신청 시기, 메디케 어 선택 사항, 은퇴 연금 인출, 상속과 양도의 방 식 등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다.

은퇴 시기부터가 그렇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 고 가장 혜택이 많을 때 은퇴해야 한다고 권하지 만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지인 중에는 70세 중반이 넘어섰지만 매일 사 무실에 출근해 일을 보고 정기적으로 출장에 나 서는 분이 있다. 건강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하



최인성 경제부 부국장

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목표를 정해 일해가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설명 을 듣게 된다. "내가 즐겁고 편하면 그것이 바로 은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선출직으로 일했던 한 한인 1세는 이미 메디케 어를 시작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후배들을 만나고 참여와 투표를 주창한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연배가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한 답변이 돌아온다.

"그래서 좀 쉬어보려고도 했는데 2~3개월 손 주들보고 여행 다녀오니 다시 좀이 쑤셔서 활동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경 계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으로 성공해 사우스베이 저택에서 살던 한지인도경제활동은끝나도 '인생활동'을 멈출 수 없다며 그림과 사진을 배워 늦깎이 예술가가 됐다. 관련된 모임에 나가 더 많은 이들과 만나고 배움을이어간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던 한 분은 60대 람이다.

초반에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 봉사 길에 올 랐다. 그는 쉽지는 않겠지만 힘겨운 사람들을 돕 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젊을 때의 각오를 드디어 실천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돈을 벌지 않으니 은 퇴했다고 해야 하지만, 비영리 봉사를 시작해 또 다른 커리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

참고로 각종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미 국인들의 평균 은퇴 시기는 60~62세 사이다. 62 세에 소셜연금을 조기 인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민사회 한인들의 은퇴는 '정답이 없 는' 시대가 됐다. 은퇴의 시기와 방식, 성격과 조건 은 모두에게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에는 모두 이 유와 배경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누가 더 잘한 은 퇴인지 판단하는 것도 무색하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춘 최선의 선택일 것이니 말이다.

간혹 티박스에서 멋지게 공을 날리고 그린 근 처까지 잘 가서 버디나 파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칩샷에서 생크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더블 이나 트리플을 적기도 하는데, 은퇴도 마찬가지 아닐까. 잘 가꿔온 인생과 가족이어도 은퇴를 앞 두고는 여러 불편함과 위기가 도사릴 수 있다. 남 의 눈을 의식해 불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포 함해서 말이다.

내가 즐겁고 편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 식과 시기가 답이 아닐까. 은퇴한 한인들의 다양 한 모습이 여러 경로로 잘 소개되면 좋겠다는 바

열린광장

오렌지 글사랑, 함께 읽고 쓴 30년

얼마 전 가든그로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뜻깊은 모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 하고 있는 문학 동호회인 '오렌지 글사랑'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회원들의 작품을 모은 책 '오 렌지 문학'의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회원들과 LA 지역의 문인 대표들이 모인 것이다.

회원들은 한 달에 두 번 모여 2시간씩 시와 수 필을 공부한다. 작가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작품 을 썼는지를 읽으며, 생각하고, 설명을 듣고, 느낌 을 말한다. 자신이 직접 시나 수필을 써 와서 회원 들과의 워크숍(workshop)을 통해 다른 회원들의 진솔한 피드백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운다.

'세컨드 에이지(Second Age)' 이후를 의미 있 게 보내기 위해 자신이 좋아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공부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해 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계속 성장하게 하고 충실해질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기



최성규 베스트 영어훈련원장

위해 많은 시간을 사유하고, 자신을 진지하게 성 찰해 왔을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일이다. 생각의 세계를 작가의 세계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은 퇴후를 보람 있게 보내는 일이 글을 쓰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자 신의 삶을 충실하게 하고 이웃과 자신의 이야기 를 나누고 있는 이들을 본다. 글을 쓰는 일도 그 중의 하나이고, 책을 읽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AI의 의존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다시 독서를 장려 한다고 한다. AI가 빠르게 정리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줄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기 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사고의 깊 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독서가 유일한 방 법이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면 덤으로 여러 가지 선물도 따라온다.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아 무리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면 뇌가 다시 활성화 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스노든 박사는 미국의 수녀 295명을 연구했다. 85세 이상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게는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어 발표했다.

80세에 호주 멜버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로나 프렌더가스트도 "공부를 못할 정도로 늙은 사람은 없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꿈을 꾸 게 된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지속적 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 다.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히 글을 쓰고 싶고, 자 신의 생각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진다.



學者 最外의 登记

11-0 = उ र्युर्गार्थम्य क्षेत्रम्य अंभूर्यार्थे पाय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RENT

전체마루, 2 차고, 덱,

\$3,300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2.사우스라이딩 타운 3.애쉬번 타운

4. 웃슨 하이, 프로스트미들

1. 우드브리지 싱글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639,000

Coming Soon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670,000 7. 맥클린 콘도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덜러스 공항

\$1,450,000 8. 센터빌 벽돌타운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5. 첸틀리 하이 싱글

6.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589,000 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Metro, Tysons Galleria 옆

Mclean High, RT 495/66/267/7,

방4, 화3.5, 4,000sqft, 차고2,

286/50/lees comer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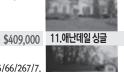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전부 업그레이드.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방2, 화2, 1,050sqft,



200

\$1,050,000 9. 애쉬번타운

\$460,000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BRIAR WOODS high, 267/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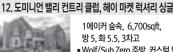
SOLD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숲, 2.312sa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자가치 높음, 동네시세 보다 십만불이상 싼집, 395/236/495/95/66

\$1,699,000

황계실 571-239-6054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모던 디자인, 123/236/GMU

●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우드 바닥 ●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한국 현대사 관통한 한강, 지구촌 폭력의 뿌리를 캐묻다

벌써 1년 전이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 학상 수상이 가져온 충격과 감동 말이 다. 한국의 근대문학은 130년 역사를 넘는다고 자부한다. 이론이 없는 건 아 니지만 한글을 '국문(國文)'으로 지정 해 관용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한 1894 년 갑오개혁을 그기점으로 본다.

1901년 제정된 노벨문학상에 한국 인들은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다. 한국 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에 따르면 동아일보·조선중앙일보 등에 1930년대부터 '올해 노벨상은 누가 받 았다더라'는 식의 중계기사가 나온다. 소설가 김승옥이 서울경제신문에 연 재했던 4컷 만화 '파고다 영감'의 1960 년 10월 28일자는, 작가로 보이는 네 사 람이 자신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쑥덕공론을 주고받는 장면을 그렸다. 식민지 시대 단순한 호 기심에서 차츰 노골적인 욕망으로, 노 벨문학상 작가를 갖고 싶다는 정념(情 念)이 강화됐다고 볼수 있다.

"문명국 한국을 알린 굉장한 사건"

하지만 노벨상의 문턱은 높아 보였 다. 1968년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 리의 수상은 한국 문단에 충격이었지 만, 정작 70년엔 스웨덴 한림원으로부 터 후보 작품 추천 의뢰를 받은 한국 펜 클럽이 추천을 포기하는 일까지 있었 다. 마땅한 영어 번역본이 없었던 때문 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예술원 회장을 지낸 시인 이 근배씨가 들려준 웃지 못할 일화 한 토 막. 80년 광주를 짓밟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삐딱한 문인들을 순치할 목적 으로 81년 문인 해외시찰단을 후원했 다. 이씨가 포함된 일행이 그리스를 방 문했을 때다. 그리스 문인 하나가 "당신 네 나라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문 자는 있느냐, 문인들이 시도쓰냐"고 묻 더란다. 당시 한국은 그 몇 해 전 현대건 설이 '사우디의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는 주바일 산업항 공사를 따낸 이후 중 동건설 붐을 누릴 때다. 81년 서독 바덴 바덴에서 88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참전국 그리스에 한국은 6.25 의 나라일 뿐이었다. 94년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와 2012년 중국의 모옌, 디아 스포라 문학(이산문학·離散文學)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00년 중국계 프랑 스작가 가오싱젠과 2017년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이시구로까지, 한국을 뺀 동아시아의 두 나라가 최고 권위 문학 상이라는 상징 자본을 차곡차곡 쌓는 동안 한국의 노벨상 프로젝트는 개점휴 업 상태였다. 조급증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은 쾌거라고밖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 다. 문학평론가 김화영씨는 "한국이 드 디어 문명국임을 알린 굉장한 사건"이 라고 했다. 봉준호의 '기생충'과 아이돌 그룹 BTS 등 세계인들에게 화사한 꽃 만 보여주다가 드디어 우리 문화의 뿌 리를 드러내게 됐다는 얘기다. 한국문 학을 번역 소개하겠다는 해외 출판사 들에 90년대 초·중반부터 번역·출판비 를 지원해 온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 학번역원은 사업 방향이 옳았음을 입 증하게 됐다. 당장 영국 포토벨로 북스 의 2015년 『The Vegetarian(채식주의 자)』 출판이 대산의 지원을 받은 것이 다. 앞으로 작품 잘 쓰는 작가는 국제 적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얘 기도 나온다.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 학가에 "이제 국문학은 노벨상 받는 전 공"이라는 우스개가 돌았다고 한다.

한강은 121번째 노벨상 작가라는 월 계관을 쓰게 됐다. 하지만 언제나 스포 트라이트를 받았던 건 아니다. 그가 93 년 시로, 이듬해 소설로 잇따라 등단한 9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 환기였다. 동유럽권 몰락 이후 이념을

소비가, 거대 담론을 생활 세계가 대체 하며 문학에서도 신세대적인 감성이 주목받았다. 내면성(신경숙)이나 후일 담 문학(공지영)이 득세했다. 시인 유하 가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 에 가야 한다』를 펴낸 게 91년이다. '전 장에서 시장으로'. 사회학자 윤여일은 당시를 이렇게 규정했다(『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

한강은 달랐다. 그가 단편 '붉은 닻' 으로 등단한 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심사에 이어 이듬해 출간한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의 해설을 쓴 평론가 김 병익은, 한강 소설은 신세대 소설과는 딴판으로 자신의 아버지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의 어둡고 간난스럽고 한스 러운 세계로 가득 차 있다고 평했다.

노벨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이 전에 한강은 이미 이상문학상(2005년) 과 동리문학상(2010년), 황순원문학상 (2015년) 등 국내의 어지간한 문학상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트렌디한 또래 작가에 비하면 한두 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시류에 무심한 것 같았다. 『채식주의자』에서 보여준, 남편 의 눈에 비친 '이해 못 할 아내'의 모습

은 은희경이 98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아내의 상자'에서 선보였던 세계다. 『소 년이 온다』의 5·18이나 『작별하지 않는 다』의 4·3 역시 선배 세대 임철우와 현기 영이 『봄날』과 '순이 삼촌'에서 십수 년 전에 각각 다뤘던 소재들이다. 세상의 변화에 반응하며 작품을 쓰기보다 자 신의 내적인 시간표, 내게 의미 있고 절 실한 이야기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손정수계명대교수).

고집스러운 한강의 문학은 어떻게 스웨덴 한림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채식주의자』의 상업적 성공으로 영미권 독자들에게 어필한 다음 한국 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을 잇 따라 써낸 게 주효했다고 보는 전문가 가 적지 않다. 물론 한강이 이런 전략적 사고를 따랐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 년 봄, 원래는 밝은 소설을 쓰려고 했 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대 초반 사진첩 을 통해 접한 광주의 참상, 그래서 품 게 된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 각에 결국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됐다 고 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 는다』에는 혼이 화자로 등장하거나, 혼

■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 강이 지난해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 서 열린 노벨상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 다. 2 지난해 12월 스톡홀름 워터프런트 콩그레 스센터에 걸린 한강의 초상화. 스웨덴 화가 니클 라스 엘메헤드가 그렸다. 3 한강이 노벨박물관 에 기증한 작은 찻잔. 4 한강이 받은 노벨상 증서. [사진 노벨상위원회·한승원·김승옥]

과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 실주의에 어긋한 판타지다. 한림원이 "현대 산문의 혁신가(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라고 평한 대 목이다. 문학성도 문학성이지만 한강 의 수상은 결국 선진국 수준으로 성큼 성장한 우리 국력과 문화력이 복합 작 용한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문학평론가 이광호씨는 "한강 의 수상은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그중 에서도 한국 작가에게 상이 주어질 만 한 맥락도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했 다. K팝·K시네마 등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커진 데다 그동안 노벨상이 백 인 남성 작가들에 치우쳤던 점을 한림 워이 의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평론 가 김명인씨는 "5·18이나 4·3을 다룬 한 강 소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 는 상황과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 했다. 역시 문학 외적인 고려가 작동했 다고 보는 시각이다.

염상섭·최인훈 등 선배 문인의 유산

그런데 맥락을 강조하면, 다른 맥락 이었다면 한강 아닌 다른 작가가 노벨 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가령 『광장』의 최인훈이나, 1930년대 대표작 장편 『삼대』를 발표한 염상섭 같은 작가가 제때 제대로 해외에 알려 졌더라면 얼마든지 노벨상을 받을 만 했다는 것이다. 130년 한국 근대문학의 축적이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다. 비교 문학적 검증이 필요해 보이지만 평론 가 김명인씨는 "식민지 근대 시기 산출 된 한국 문학 작품들은 세계사적 기록" 이라고 했다. 검열 체제에서 쓰여 깊이 가 있고 독특하다는 것이다.

1970년생 작가 한강은 누구보다 독 서를 열심히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며 역량을 축적한 선배 세대 문학을 쑥쑥 빨아들이며 성장했다고 봐야 한 다. 한림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 과함께성장했다"고한건일종의애정 고백이다. 그런 점에서 한강에 주어진 노벨문학상은 동시에 한국문학에 주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준봉 논설위원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챈틸리 as Is 급매

\$300,000 (임대 \$1,800)

비키리 부동산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XILIOP / 703-863-0321



- 투자이민 (EB-5) - NIW

시민권 / 영주권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 취업이민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 간호사(RN)

(한국어 상담)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시 설

쟁점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 … 후폭풍은 어떡할 건가

정부·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맞선 야당의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어제(29일) 마무리됐 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묵살하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필리 버스터는 각 법안 의결을 고작 24시간 지연시킬 뿐 사 실상 무력했다. 하지만 지난 닷새 사이 여당이 밀어붙 인 법안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구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일자 없던 일이 됐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겨냥한 국회 증언감정법의 '소 급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삭

고발권을 놓고선 국 회의장과 법사위원 장 사이에 막판까지 논란이 벌어졌다.

제됐다. 특위 위증

정부조직법·증언감정법 조변석개식 졸속 처리 검찰청 폐지에 현 정부 검찰총장 대행까지 경고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안들이 얼마나 졸 속인지 말해 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 는 데 따른 후폭풍이 가장 심각하다. 김종구·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한상대·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 은 "법 공포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

검찰청 폐지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는 헌법 89조 규정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1989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변경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 조항에 명기된 '합동참모의장' 때문에 철회한 선례도 있다.

만약 검찰청 폐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 와 여당은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 오 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 무대행까지 어제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다"고 했을까.

위헌 논란뿐이 아니다. 올해 검찰이 3개월 내 처리하 지 못한 미제 사건이 2만2000건에 이르는 등 검경 수사 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적체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정청래 민주

> 당 대표)는 말 때 문에 이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번 국회에서 도 재연된 여당의

입법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협치 약속을 무색하게 한 다. 지난 26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흐름을 가 변게 넘겨선 곤란하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이번 법안 강행의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견을 묵살하고 입법 독주로 치달은 여당은 공소청 보완수사권 등 후속 입 법 과정에서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졸 속 법안이 야기한 부작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비이성적 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을 수 있 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국가 전산망마비에 또다시 번진 '네 탓' 공방 고질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국가 전 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 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라 놀랍지도 않다. 사태 수습은 뒷전으로 미뤄놓 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윤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전현희)라는 등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재명 대통 령은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 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도 "놀라운 건 2023년에 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 다. 역시 지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뉘앙스였다. 국민 의힘 측은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라고 맞받았다.

2023년 11월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 이 전면 중단되는 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화 재가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오류가 원인이었 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무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점에선 닮은꼴이다. 2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던 이 대

통령이 이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건 아이러니다.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는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급선 무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는 대면 창 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로 혼잡 을 빚었다. 행정안전부는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 개 중 일부가 복구됐다고 밝혔으나 완전 정상화까지 는 갈 길이 멀다.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은 대구센 터로 이전해 재가동하는 데 4주 정도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정부 전산망의 총체적인 점검과 재발 방 지책 마련이다. 국회는 2022년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계기로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 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막상 국가 전산망의 관리와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전산망 이중화가 시급한 과 제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대안을 찾는 데 정치 권은 힘을 모아야 한다. 책임 소재는 이후에 따져도 늦 지않다.

'전기톱개혁'의 빛과 그림자

서경호의 시시각각



경제 상식에서 벗어난 미국의 무리한 요 구로 한·미 관세협상이 꽉 막혀 있다. 답 답한 가운데 눈길이 가는 외신이 있었 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는 보도였다. 경제 체질을 잘 개혁하고 있다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칭 송이 자자했던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갑 자기 외환위기에 몰렸을까.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취임한 건 2023년 12 월. 당시 아르헨티나는 연 211%의 인플 레와 페소화 가치 급락으로 만성적인 외 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달 러 부족과 인플레를 막겠다는 이유로 외 환·생필품값·수출입 통제 등 경제의 전 분야를 규제했다.

이런 시장 개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라고 판단한 밀레이는 정부 역할을 최소 화하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보조금과 복지성 지출을 줄이 는 재정 긴축을 밀어붙이고 정부 부처 10 개를 줄였다. 대선 유세 때 밀레이의 상 징이었던 '전기톱 개혁'이 현실이 됐다. 포퓰리즘에 거덜났던 경제가 회생하기 시작했다. 인플레가 한 자릿수로 잡혔 고,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다. 밀레이의 시장주의 개혁으로 오랫동안 경제를 망 가뜨렸던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와 영원 히 결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코노미스트는 밀레이 성공의 위험요소 를 지적했다. 첫째, 페로니즘의 부활. 인 플레는 잡았지만 저성장·고실업·빈곤에 대한 대중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페론주 의자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둘째, 페소 화 고평가. 현재 환율의 상·하한을 정해 놓은 관리변동환율제인데 상한을 방어 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안 그래도 빈약한 외환보유액을 축내고 있다. 셋째, 밀레이 의 독선과 즉흥적 태도. 법원 개혁을 한 답시고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고, 기후변화·낙태 등을 공격하면서 불필요하게 전선을 넓혔다.

최근의 위기는 이달 초 지방선거에 서 집권당이 참패하면서다. '미친놈(Le 보는 이가 많다. Loco)'이란 별명까지 얻은 밀레이가 전

기톱으로 썰어냈던 페로니즘이 다시 귀 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환율이 급 등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일단 통화스와 프와 국채 매입 등 스콧 베센트 미국 재 무장관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미국 의 개입은 10월 말 아르헨티나의 중간선 거에서 '남미의 트럼프' 밀레이를 돕기 위해서였다.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결 국 경제였다. 재정 긴축에 페소 가치 안 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내수 침체가 심해졌다.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 니 아낌없이 퍼주던 페론주의의 달콤했 던 추억이 다시 꿈틀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미 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삼는 달러화 (dollarization)를 해법으로 거론한다. 통화스와프는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다. 달러화와 중앙은행 폐지는 밀레이 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 다. 달러화는 인플레와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지만 일국의 통화정책을 포기 해야 하는 힘든 선택이다.

잘나가던 아르헨티나 경제 개혁 내수 침체에 페로니즘 다시 꿈틀 경제 한번 망가지면 회복 어려워

중장년층에게 추억의 일본 애니메이 션인 '엄마 찾아 삼만리'는 이탈리아 빈 곤층 아이가 부국 아르헨티나 가정부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정도로 경제 부국이었던 나라가 1946 밀레이가 한창 잘나가던 지난해 말 이 년 페론 정권 이후 철저히 망가졌다. 디 폴트 선언 9회에 올해 4월 받은 것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23차 례 받았다.

>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으로선 먼 나라 얘기 같다. 하지만 경제가 한번 망가지면 걷잡을 수 없고 한번 빠지면 부 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만 은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도 최근 재정관 리 좀 잘하라는 IMF의 조언을 받았다.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 업에 부담이 되는 일련의 입법을 '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재 명 정부의 도저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지 궁금하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

> > 논설위원

중앙일보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iad.i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3909 서욱특별시 마포구 상악사로 48-6 안내전하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AN WIND MAN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LE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時本通信 日本校連新聞 フェミー 3 女 20 000 3 / 1 / 1 / 1 000 条

주필 이하경

Potomac Law Group. PLLC <u>"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u>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혼앞빌딩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저서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기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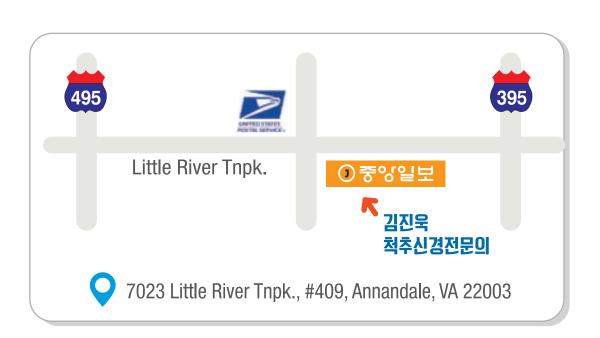
과 목

- 목이 뻣뻣한 증상
-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ㆍ허리 디스크

-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10월 15일 ~ 12월 7일

2026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703-973-5900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ichelle Kim 703-337-0910



Melissa Kang 410-216-1553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9AM~4PM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27년의 경험과 실력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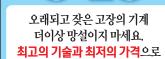
Fairfax

Fairfax Richmond Ellicott City Tidewater/Newport (703) 642-0305 (804) 767-3714 (410) 216-1553 (757) 941-7216

Tidewater/Newport News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교체해드립니다.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Cell** : 703–678–1749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40년 경력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템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5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8 2025

"하루 8시간만 먹었다" 일주일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1.3kg 줄어

16시간 공복 유지, 체지방은 그대로 단식시간보다 칼로리 줄여야 효과적

식사 시간만 조절해도 살이 빠질까. 다 이어트를 위해 일주일간 간헐적 단식에 도전했다. 원칙은 간단하다. 하루 8시간 만 음식을 섭취하고, 16시간은 아무것 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가장 대중적인 간헐적 단식법인 16대 8 방식을 따랐다.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까지. 그외 시간엔 물만 들이켰다. 운동 도, 식단 조절도 없이 '식사 시간 제한' 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켰다. 단식 시간에 대한 압박이 느껴질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다. 아침 식사만 건너 뛰면 16시간 공복이 자연스럽게 유지된 다.

첫날 아침 8시. 무심코 달콤한 커피를 마시려다 멈췄다. "아, 단식 중이지." 단 식 시간에는 물과 무가당 차 등 칼로리 없는 음료만 허용된다. 얼른 점심시간 이 되길 손꼽아 기다렸다. 간헐적 단식 의 장점은 금지된 음식이 없다는 것이 다. 정해진 시간 안에선 비교적 자유롭 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외식도 가능하고, 복잡한 식단을 짤 필요도 없다.

이틀째까진 공복감보다 '수시로 먹 던 습관'을 참는 일이 더 어려웠다. 아침 부터 습관처럼 커피와 과자를 입에 넣 었던 것, 야식을 먹기 위해 배달앱을 켰 던 행동을 모두 멈추는 게 쉽지 않았다. 자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앞을 서성였다. 늘 허기가 몰려오기 전에 음 식을 섭취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만 먹어야 한다니 없던 식욕도 더 생기 는 듯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냉장고 문 을 여닫길 반복했다.

사흘쯤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 했다. 공복 상태가 낯설지 않았고, 아침 시간도 한결 가벼워졌다. 식사 후 포만 감도 빨리 찾아왔다. 억지로 참고 버틴 다는 느낌이 덜했다. 야식의 유혹 앞에 선 여전히 마음이 약해졌지만, 식단 관 리가 필요한 다른 다이어트 방법보단 심리적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었다. 불 규칙한 식사 시간이 개선된 점도 큰 수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주일간의 간헐 적 단식 체험이 끝났다. 아쉽게도 극적 인 체중 변화는 없었다. 체중은 1.3kg 줄 었고, 체지방률은 그대로다. 단식 시간 만 지켰을 뿐 전체 식사량을 줄인 건 아 니므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게 당연 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이때다' 싶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도 했으니 말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총 섭취 칼로 리를 줄이는 데 있다. 단식 시간만 지킨 다고 무조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 는 게 아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 의학과 조현 교수는 "간헐적 단식은 식 사 시간을 제한해 총 섭취 칼로리를 줄 이는 식사 치료의 한 방법"이라며 "제 한된 시간 안에 고열량 음식을 과식하 면 효과는 반감된다. 그 시간 안에서도 절제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다.

간헐적 단식은 잘만 활용하면 대사증 후군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 조 교수 는 "공복시간이 늘어나면 인슐린 분비 가 줄고,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 력이 개선된다"며 "체중 감소와 대사증 후군 예방에도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

와 지속성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 다.

물론 단식이 모두에게 이로운 건 아 니다. 성장기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 저체중자, 고령자, 저혈당 위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단식을 피하는 게 좋다. 조교수는 "다이어트든, 건강관리든 자 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 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간헐적 단식 을 무작정 실천하기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사법을 실천하는 게 현명하 다"고말했다. 신영경 기자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Δ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금, 9am~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 칼럼

의외로 많은 수면장애, 수면중 주기성 사지 운동증

7세 남자 환자가 잠을 푹 자기 힘들다 는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일 찍 잠자리에 눕지만 잠이 드는 것이 매 우 힘들다고 한다. 매번 잠드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것은 보통이라 하는데, 또 가까스로 잠에 들어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자주 깨어나게 되어 잠을 자는둥 마는둥 한다고 하였다.

화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한밤 중 에 깨어나면 그때마다 다시 잠이 들기 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었다. 이렇듯 초저녁엔 잠들기 어렵고 잠을 가까스 로 청하여도 자주 깨어 힘들고 그때마 다 매번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니 아침 에 일어나면 잠을 잔듯 만듯 매우 피곤 하였다.

이로인해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초래되었음은 물론이다. 환자는 또한 상당한 정도의 우울감도 느끼고 있었 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 라는 흔히 말하는 수면검사를 의뢰하 게 되었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장애 진단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수면 뿐만 아니 라 수면 중에 일어나는 다른 여러가지 신체기능을 함께 측정하는 검사이다. 수면다원 검사 중에는 수면의 단계를 측정하는 뇌파검사를 비롯하여 눈의 움직임, 팔다리의 움직임 및 턱 근육 의 긴장도와 더불어 호흡기능 및 심전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도를 통한 심장의 리듬을 살피게 된다. 수면검사 결과 이 환자의 경우 매우 심 한 "수면중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 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되 었다.

수면중 주기성 사지 운동증('야간 주

기성 사지 운동증' 또는 줄여서 '주기 성 사지 운동증'이라고도 한다)이란 일반인들에겐 매우 낯설은 질환 이름 임에 틀림없으나 이름과는 달리 매우 흔한 수면질환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주기적으로 손 또는 다리를 움직이는 질환으로 대 다수의 경우 팔보다는 다리에서 증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부분 약 30초 단위로 증상이 발생 하며, 전형적으로 엄지발가락을 펴는 동작과 함께 발목과 무릎, 또는 고관절 을 굽히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 상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움찔하는 동 작이나 다리를 차는 동작과 유사하다.

연구에 의하면 주기성 사지 운동증 은 30세 이하의 젊은 나이에서는 드물 지만 나이가 들면서급격하게 증가한 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50세에서 65세 인 구의 약 3분의 1에서 주기성 사지 운동 증이 있다고 하며, 65세 이상에서는 거 의 반 수에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발 견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로 불 면증 환자의 10명중 2명에서 주기성 사 지 운동증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정확 한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가 있음 은 물론이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AI로 활력 징후 분석, 심정지 고위험 환자 빨리 찾아 대처"

인터뷰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쓰이면서 병원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응급 상황인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 능(AI)이다. 이를 통해 즉각적 심폐소 생술이 필요한 코드 블루 상황을 줄인 다. 심정지 고위험 환자를 정확하게 선 별해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일반적 으로 입원 환자의 나이가 많고 질환 위 중도가 높을수록 병원 내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크다. 동산의료원 조치흠 의 료원장은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병원 에 쓰이면서 더 안전한 환자 관리가 가 능해졌다"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동산 의료원 산하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양 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환자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 음은 조 의료원장과의 일문일답.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심정지가 생 겨도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나.

"병원 안에서 발생한 심정지라도 빨 리 발견해야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심 장이 멈추면 즉각적으로 뇌·폐·간 등 각 조직으로 흐르던 혈액순환이 중단 되고, 생체 활동에 필수적인 산소·영양 소공급도 끊긴다. 입원 환자의 활력 징 터링하면 심정지 고위험 환자를 더 빨 리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AI 심정지 예측 시스템을 적용해 보니 현장 반응이 기 대 이상이었다."

입원 환자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병원으로 환자 중심 치료 시스템 고도화로 7단계 인증목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질병 치 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AI로 개별 환자의 활력 징후를 분석해 상태 변화를 0~100점으로 수치 화해 알려준다. 모니터링 같은 단순 반 복 작업은 사람이 AI를 따라잡을 수 없다.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환자를 살 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진에게도 환 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다."

심정지는 나타나기 전 활력 징후 변 화 등 전조 증상이 있다. 기존에도 이 를 수치화한 MEWS(Modified Early Warning Score) 점수 등으로 심정지 를 예측했지만, 허위 경보율이 높은 게 문제였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울린다. 결국 거짓말 을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알림을 믿지 못하게 된다.

심정지 예측 AI인 뷰노의 '딥카스 (DeepCARS)'는 이런 단점을 보완 했다. 입원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 도를 점수로 보여줘 심정지 고위험 환 후 데이터를 AI가 24시간 실시간 모니 자를 선별한다. 혈압·맥박·체온·호흡 등 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측정하는 활 력 징후 변화를 딥러닝해 사전 예측도 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오(誤)알 람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심정지 발 생을 뒤늦게 인지하는 것을 줄였다.



동산의료원 조치흠 의료원장은 "심정지 예측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병원에서 활용되면서 더 안 전한 환자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더 안전하게 환자를 살려냈을 때다. 뇌졸중으로 혈전을 제거하고 스텐트 를 시술했던 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잘 지내면서 퇴원을

기다리다가 심정지 위험도 점수가 올 라갔다. 약을 투약해도 이른 저녁부터 새벽 내내 점수가 오르면서 상태가 불 안정해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 집중적 으로 치료했고 큰 후유증 없이 퇴원했

다. AI로 병원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입원 환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모 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처하면서 소생 가능성을 높인다. 심정지는 발견이 늦 을수록 응급 처치가 길어지고 뇌 손 상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 다."

-심정지 예측 AI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병원 내 심정지 발생이 얼마나 줄었나.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체감상으로는 20~30%가량 줄었다. 심 정지 고위험 환자를 제대로 선별해 집 중 관리하면서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심 정지를 조기에 대처한 결과다."

-동산의료원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전 환에 적극적인데.

"의료 현장에서 이제 AI 같은 디지 털 기술은 필수다. 디지털 진료 역량을 강화하면 질병을 검사·진단·치료하는 데 필요하지만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업무가 줄어들면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처치 등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안 전한 치료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우 리가 추구하는 환자 중심의 감성 병원 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친화 적 헬스케어는 동산의료원이 그리는 미래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카카오톡 기반 챗봇 서비스로 진료 편의성을 높 였다. 외래 진료 예약, 문진표 작성, 입 퇴원 수속, 진료비 납부 같은 서류 작업 을 모바일로 처리한다. 즉각적 대응이 중요한 뇌졸중 같은 필수의료 분야도 AI로 응급 진료 효율성을 강화했다.

권선미 기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뜸·한약 (치료제, 보약)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대사증후군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 ◎ 비만
- 만성피로
-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에서 처방되는

원장 채여혜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박사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중앙일보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부부 맞춤형 난임 치료 고대했던아이만난다

인공·체외 수정 1년간 20만건 진행 나이 원인 따라 추천 시술법 달라져

시술 때 심리적 안정감 유지해야

요즘 난임 부부의 희망은 보조생식술이다. 정 자와 난자 또는 배아를 신체 밖에서 다뤄 임신 을 유도하는 의료 행위를 뜻한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로 불리는 체외수정이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 한 해 동안 약 20만 건의 보조생식 술이 이뤄졌다. 인공수정 3만3137건, 체외수정 16만6870건이다.

인공수정은 배란기에 맞춰 정액을 자궁 내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수정은 일반 적인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팔관에서 이뤄 져야하므로최소한한쪽나팔관이라도정상적 으로 기능해야 적용할 수 있다. 인공수정은 주 로 ▶배란기에 성관계를 시도해도 임신에 실패 한 경우 ▶정자 이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원 인 불명의 난임 등에서 1차 치료 방법으로 시도 해볼 수 있다. 인공수정은 배란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연배란주기 인공수정과 배란 유도제를 활용한 과배란 인공수정으로 구분한 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잠실 산부인과 박지은 교수는 "자연배란주기 방법은 하나의 난자가 배란되는 시기에 시술이 이뤄져 임신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반면에 배란 유도제를 사 용하면 배란되는 난자의 수를 늘려 임신 확률 을 높일 순 있지만, 약물 부작용이나 다태아 임 신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율은 나이 원인에 따 라 다르지만, 회당 평균 10~15%로 알려져 있다. 박교수는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시술 전에 주 치의와 상담하고, 정액 채취는 2~3일 정도 금욕 하는 게 도움 된다"며 "시술은 마취가 필요 없 고 시간도 짧게 걸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 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탕 목욕, 사우나 등 체온 을 올리는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 다. 시술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보통 인공수정을 3~6회 시도했는데도 임신에 실패 한다면 체외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 41세의 나 이로 난임 병원을 찾은 한 여성은 2년 동안 9차 례 체외수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난소 기능이

좋지 않아 배아를 얻기 무척 어려웠다. 그 과정 에서 단 하나의 배아를 동결했고 이를 이식한 결과 임신에 성공해 건강하게 출산을 마쳤다. 박교수는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는 배아는 생 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 다"고 강조했다.

체외수정 임신율 30%, 인공수정보다 높아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를 채 취하고,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배양접시에서 수정시킨 다음 배아를 3일 또는 5일 동안 배양 한 뒤 자궁내막에 이식하는 시술이다. 주로 ▶ 인공수정에 반복해서 실패한 경우 ▶양측 나 팔관이 막혔을 경우 ▶나팔관 절제술을 받아 양측 나팔관이 없는 경우 ▶난소 기능이 저하 한 경우 ▶정자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떨어지 는경우등에 고려할 수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이경욱 교수는 "체외수정은 난자를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정 자와 수정시켜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 는 반면,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 내에 직접 넣 어 자연적인 수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외수정은 나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 으나 회당 임신율이 평균 30~40% 정도로 인공 수정보다 높은 편이다. 대부분 임신율을 높이 기 위해 다수의 난자를 한꺼번에 얻고자 과배 란 유도 과정을 거친다.

보통 생리 2~3일째부터 약 7~10일간 배란 유도 제를 주사한 뒤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키는 방법이다. 이땐 호르몬의 변화로 여성은 가슴 팽만감과 메스꺼움, 구토를 겪기 쉽다. 증상이 심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이 시기엔 격 렬한 운동이나 장거리 이동은 피하는 게 좋다. 과배란 유노 수사들 맞는 농안에는 2~4일에 한 번씩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난포의 성장 속도를 관찰하고, 약의 반응도를 점검하면서 정부지원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어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매달 자 연히 소멸하는 난포를 키워 성숙한 난자를 채 취하는 것이므로 난소 기능이나 폐경 시기와

난임시술에 대한 궁금증 Q&A

과배란 주사는 부작용이 많을까



과배란 주사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난포가 너무 많이 자라 생기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이다. 주 로 복수가 차 복부 팽만감을 느끼 고 체중 증가, 구토 등을 경험한다. 심하면 드물게 혈액이 응고되는 혈 전이 생기거나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치료하면 특별한 부 작용 없이 회복할 수 있다.



3일·5일 배양 중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

주로배아는 3일 또는 5일 배양중선택하게된다.3 일 배양은 세포가 8개까

지 분열하고, 여기서 이틀을 더 키우면 수많은 세포로 분열된 배반포를 이식할 수 있다. 5일 배양을 하면 착상력이 증가하 는 장점이 있지만, 체외에서 오랜 기간 키우다 보니 배아가 생 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환자 나이와 상태 를 지켜봐 온 주치의의 결정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이식 어떤 차이가 있나 배아 이식에는 ▶채취 한 난자를 정자와 체 외수정한 뒤 배양 과 정을 거쳐 바로 배아

를 이식하는 신선 배아 이식과 ▶배아를 바로 이식하지 않고 동결해 뒀다가 원하는 시점에 해동해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 신선 배아 이식은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과도한 호르몬 자극 을 받아 착상 환경이 최적이 아닐 수 있고, 동결 배아 이식은 해동 과정에서 배아 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난소 기능 향상과 착상을 돕는 약이 있을까

난자는 재생을 유도하거나 젊 게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아니 다. 또 난소 기능은 약을 쓴다 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착상에 도움되는 약도 없다. 그러나 착 상에 방해가 되는 특정한 이유 가 확인돼 약으로 개선이 가능 하다면 이를 위한 약을 쓸 수 있다. 엽산은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다. 산모나 난임 여성을 위한 종합영양제 정도는 먹어 도무방하다.

시술받기 전 권장되는 식이요법이 있나

시술을 위한 식이요법이 따로 있진 않다. 다 만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임신 전부터 난자의 질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엽산과 비 타민D를 적정량 복용하는 게 유리하다. 건 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채 소와 과일, 통곡류를 충분히 먹고 정제된

곡물 섭취는 줄이 는 게 좋다. 술·담 배를 피하고 유산 소 운동을 병행하 면 좋다.



참고 자료: 『난임 가이드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지은 교수는 "과배란 유도제의 반복 사용 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으로 난소 기능이 저하하거나 폐경이 앞당겨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은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욱 교수 는 "시술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에 치료를

결성하지 못하는 난임 무무노 석지 않다"며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 는 만큼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늘면서 정부에서도 이 의 난임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 은 교수도 "난임 치료는 그 여정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식 단과 운동, 긍정적인 마음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하지수 기자



상담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혼 앞 7700 건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손목·어깨·무릎 통증, 타마린드·강황 추출물로 잡는다

관절 통증 개선하는 신소재

나이가 들면 체감하는 신체 변화 중하 나가 관절 움직임이다. 무릎이 뻣뻣하 고 쑤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지기 시작한다. 어깨 통증 때문에 늘 하 던 양치질이나 머리 감기도 고역이다. 허리가 아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엄 두도 못 낸다. 손목이 시큰거려 설거지 나 걸레질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부 담된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가 불편하 고, 운동은 더 멀리한다. 관절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다.

연골 분해 물질 줄이는 데 도움

관절이 아프면 밤에 통증이 심해 숙면 을 하지 못하고 다음 날 만성피로에 시 달린다. 낮에 기운이 없으니 가사와 사 회생활 모두 위축된다. 외출 자체를 꺼 린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고 활동 반 경이 좁아지면서 마음마저 우울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건 강 문제를 불러온다. 체중이 불어나고 당뇨병·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근육도 점점 줄어들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쉽고 회 복속도는 늦어진다. 통증 때문에 움직 이지 못하니 근육과 건강이 더 약해지 고,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 복된다.

관절 통증을 잡는 것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이다. 통증을 줄이고 일상적 인 동작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관절은 뼈마디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직 결돼 있다. 관절을 지켜야 숙면이 가능 하고 가사도 돌본다. 운동을 해야 당뇨 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관 절 건강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 인셈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무릎관절처럼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나이 들수록 염증이 생기면서 연골이 손상되기 쉽다.

강력한 항산화·항염 성분 농축 연골 손상시키는 염증 줄여줘 섭취 5일 후부터 뻣뻣한 무릎 개선

최근 관절과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 이 되는 성분으로 '타마린드강황주정 추출복합물'이 주목받는다. 이 성분은 인도의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 서 활용해 온 열대 식물 타마린드 씨앗 과 강황 뿌리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

해 만든 신소재다. 『아유르베다』는 약 5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의학서 로 식물·광물·동물에서 얻은 자연 재 료를 활용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타마린드와 강황은 『아유 르베다』에서 오래전부터 관절과 소화, 염증 완화에 두루 쓰여 온 원료다.

타마린드 씨앗에는 프로안토시아니 딘이 풍부하다.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천연 색소·영양)의 일종이다. 이 성분 은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세포를 손 상시키는 물질)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강황에서 얻어지는 커큐민 역시 대표적인 생리

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물 원리

- · 연골 세포 보호
- →타마린드 씨앗 추출물이 연골 세포 손상 을 늦추고 퇴화를 막아줌

· 염증 억제

→강황 뿌리 성분(커큐민)이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줄여 손상 악화를 예방

· 관절액 생성 촉진

→관절 사이를 윤활해 주는 '관절액'을 늘 려움직임을 부드럽게 함

· 통증·뻣뻣함 완화

→항산화·항염 작용으로 관절 통증을 줄이 고, 관절 가동성 회복

· 안전성 확보

을한다.

→자연 유래 성분이며 국제적 품질 기준인



활성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항염 작용

두 가지 성분을 주정(알코올) 추출

법을 통해 정제・농축해 만든 것이 타마

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물이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항염

성분을 한데 모아 농축한 신소재다. 관 절 건강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얼

마나 줄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무릎이

나 어깨처럼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염

증이 생기면서 연골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

물은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지켜주는

원리로 관절 건강 개선 효과를 보인다.

만에 관절 통증과 염증 수치가 감소했 다.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가동 범위와 운동 능력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관 절건강지표가 좋아졌다. 국제적 원료·품질 관리 인정받아

그 효과는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확

인됐다. 평균 55세의 중등도 이하 관절

불편을 호소하는 90명을 대상으로 하

루 250mg씩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5일

또 다른 시험은 40~70세, 경증~중등도 무릎 불편감을 가진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도 염증 지표와 연골 분해 물질이 줄어드는 효과가 관 찰됐다. 특히 하루 250mg 섭취 효과가 보스웰리아(관절 건강 보조제 성분) 1000mg 섭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나 고용량 관절 보조제를 대체할 가능 성도 확인됐다.

타마린드 씨앗에서 얻은 추출물은 연골 세포를 보호해 닳아 없어지는 속 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강황 뿌리에 서 얻은 커큐민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 제해 관절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 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연골 퇴화 를 막고 염증 물질을 줄이며 관절액 생 성을 촉진한다. 관절액은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같은 존재다. 복 합물이 관절 통증을 가라앉히고 뻣뻣 한 관절을 풀어주며 움직임을 한결 유 연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 물은 자연에서 얻은 성분으로 만든 원 료다. 타마린드와 강황은 오래전부 터 식재료이자 약재로 쓰여왔다. 여기 에 더해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원료・ 품질관리 기준인 할랄(Halal)과 코셔 (Kosher) 인증을 모두 획득해 국제적 으로도 안전성 신뢰를 인정받았다.

이민영 기자

레메디 방사선 촬영 장치

초소형 X선으로 NASA 프로젝트에 선정 … 글로벌 무대서 주목

무게 2.4kg, 방사선 피폭량은 3분의 1 기업들과 나란히 기술력을 검증받으며 WHO·IAEA에서도 기술력 인정받아

디지털 X선 전문기업 레메디 (REMEDI)가 미국 항공우주국 (NASA·나사) 글렌 연구센터의 우주 치가 가능한 장비가 필수다. 의료기술 개발 프로젝트 시험 대상 기 업으로 선정됐다. 대학 연구소 창업에 서 출발한 작은 벤처기업이 글로벌 대

세계적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사 글렌 연구센터는 달·화성 탐사 인프라 부족한 재난 현장서 바로 활용 등장기 유인 탐사 시대를 대비해 초소 형 X선(mini X-ray) 장비 시험을 진행 했다. 우주에서는 통신 지연과 귀환 제 한 때문에 현장에서 곧바로 진단과 처

> 연구센터는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주복의 미세한 손상, 탐 사용 로버 타이어 균열, 탐사 장비 구

조 결함까지도 빠르게 파악하는 기 (IAEA)·세계보건기구(WHO) 등 글 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 계 200여 종의 장비를 평가했다. 크기, 무게, 영상 품질, 사용 편의성, 안정성 등 요소를 종합 검증한 결과 최종 시 험 기업으로 한국의 레메디, 미국의 'MinXray', 일본의 '후지필름' 세 곳을 선정했다.

크기·품질·편의성·안전성 종합 검증

로벌 기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 다. 지난 4월 오스트리아 빈 IAEA 본 부에서 열린 국제방사선과학기술응용 콘퍼런스(ICARST 2025)에서 나자트 목타르 IAEA 사무차장은 레메디의 소형 X선 '레멕스-KA6'를 살펴본 뒤 "딱 필요한 제품"이라며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 앞서 레메디는 국제원자력기구 는점에서 저개발국의료환경에 최적

이라는 평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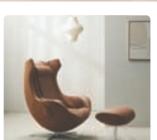
레멕스-KA6는 결핵·폐렴 등 흉부 질환 진단을 돕는다. 중량은 2.4kg으로 경량이면서 방사선 피폭량은 대형 장 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별도의 차폐(보호) 공간 없이 곧바로 촬영해 도 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 카·도서 산간 지역, 군 의료·재난 현장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WHO는 결핵 퇴치 프로젝트에서 레 메디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WHO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결 핵 환자는 1060만 명, 사망자는 160만 명이다. 이민영 기자

세라젬과 함께 하는 10월 건강 혁신 - 척추와 혈액 순환을 위한 특별한 선택! **CERAGEM**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 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놀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목,허리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라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파트C 가입자 20년만에 첫 감소 예상

지출·규제 압박에 보험사 혜택 줄인 탓 본인부담증가예상, 플랜잘비교해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자 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 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 스국(CMS)은 지난달 26일 올해 파트C 가입자가 3400만 명으로 지난해 3500 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입자 수는 전체 시니 어의 절반이하수준이다.

다만 CMS는 "내년에는 보험사들의 예상보다 파트C 가입자가 더 많을 것" 이라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시니어들은 내년에 대 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10개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감소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 들이 지난 10여 년간 메디케어 시장 확 대에 주력했지만 최근 2년간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 지출과 규제 강화로 수익 성이 악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 들은 수익성이 낮은 플랜을 축소하거 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메디케어 등록 중개업체 '챕터'의 코비 블루멘펠 드 간츠 대표는 "보험사들이 올해는 성 장이 아닌 수익성에 집중하고 있어 일 부 혜택이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CMS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지출 감소 압박이 커졌 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 이 줄거나 플랜이 줄면서 일부 시니어 들이 파트 C를 포기하고 오리지널 메 디케어로 돌아갔다.

CMS는 파트C의 월 평균 보험료가 16.40달러에서 2026년 14달러로 낮아 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금융 리서치회사 '에버코어 ISI'의 분석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와 CVS의 에 트나, 휴마나 등 대형 보험사들의 다 수 플랜에서 보험료와 공제액, 본인 부 담 상한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HMO 플랜은 혜택 축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과 헬스케어 부문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먼'의 브룩 스 콘웨이 수석 컨설턴트는 "보험사들 은 0달러 보험료 상품을 바꾸는 것은 꺼리지만 이미 보험료가 책정된 상품 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또 중개인 수수료를 조 정하고 있다. 수익성 높은 플랜으로 가 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수 익성이 낮은 플랜에서 수수료를 없애 거나 플랜 자체를 없애는 사례가 늘었 다. 챕터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오픈 등 록에서 전국적으로 15~20%의 플랜이 빠졌다. 플랜이 없어진 경우는 뉴욕에 서는 25% 이상, 조지아 일부 지역에서 는 35% 이상이나됐다.

이 때문에 일부 중개인들은 특정 플 랜에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본인 부담 상한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HMO는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했다. 보험사가 가입 자체를 막아버려 고객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

보험사들의 혜택 축소와 시장 재편 으로 내년 가입자 전망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콘웨이 수석은 "보험사 들이 혜택을 줄이면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주요 보험사 가 시장에서 철수하면 오히려 가입자 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파트C 시장은 혜택이 늘면 가입자가 늘

고 혜택이 줄면 가입자가 줄어드는 공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구 조와 보험사의 철수 여부에 따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e 헬스의 휘트니 스티돔 부사장은 "내년 은 자동 갱신으로 넘어가기 좋은 해가 아니다"라며 "플랜을 비교하는 것만으 로도 본인 부담금을 연간 1800달러 이 상절감할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플랜 오픈 등록은 1일부터 시

작됐다. 시니어들은 보험사로부터 기 존 플랜 변경 사항을 통보받게 되며 15 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플랜을 선 택할수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단기적일 경우 등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CM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 이드의 핵심 서비스는 유지되며 콜센 터운영등의 기능은 일시 중단될 수 있 다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

베이비붐세대 20%만 "상속계획 있다"

생전 소비·의료비 확보에 중점 '124조 달러 상속' 줄어들 듯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부모 세대로 부터 약 124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부 의 이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Z세대 절반 이상과 밀레니 엄세대의 약 60%는 상속을 통해 재정 적 안정을 확보하고 편안한 은퇴를 맞 을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회사 노스웨스 턴뮤추얼이 성인 4500명 이상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 가 꿈꾸는 거액의 상속은 일부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전체 자산 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는 상당 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 고 있으며 다운사이징도 늦추고 있다. 실제로 상속 계획이 있다고 밝힌 베이

만 현금이나 부동산 상속보다는 장례 절차 등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절반 이상은 의도적으로 상속 재산을 남기 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무언가 를 남기는 것을 최우선 재정 목표로 꼽 은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상속 대신 생전 소비를 중시하는 흐 름도 뚜렷하다. 평생 모은 돈을 직접 쓰 며 즐기고 자녀에게 거액을 남기지 않 비붐 세대는 20% 남짓에 불과했다. 응 겠다는 '다 쓰고 죽기(die with zero) 는 병원과 요양 시설로 흘러들 가능성 이 부모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기대

가족과 여행을 하거나 기부 활동을 통 해 살아 있는 동안 돈의 가치를 나누고

은퇴 생활비 증가도 상속 축소의 주 요 원인이다. 노스웨스턴뮤추얼 조사 에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2020 년 95만1000달러에서 올해 146만 달러 로 급등했다. 의료비와 요양원 비용이 늘면서 '거대한 부의 이전'이 가족보다 답자의 60%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지 '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상속 대신 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베이 하고 있다.

비붐 세대의 절반 가까이는 은퇴 후의 료비 지출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이미 '부모은 행'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우선 밀레니 엄세대는 부모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 련한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다. 퓨리 서치센터에 따르면 30대 초반 밀레니 엄 세대의 3분의 1은 여전히 부모로부 터 생활비나 스트리밍 구독료 등을 지 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구입에 나선 젊은 세대의 3분의 1이상



찹출발 중앙일보가 함메합니다.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발표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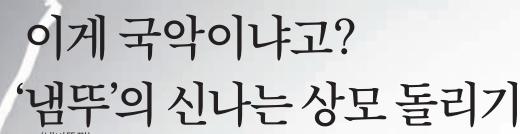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불 꺼진 무대 위, 버킷햇(벙거 지모자)을눌러쓴 청년이 등장했다. 그가 드럼 소리에 천천

히 고개를 들자, 발끝 아래로 늘 어진 초리(상모 끝긴 끈)가 스르륵 곡선 을 그렸다. "다 같이 손잡고 떼루(떼로) 놀자"며 동행을 권하는 청년의 구성진 목소리가 절정을 향해 갈 때 쯤, 음악이 멈췄다. 템포를 높여 다시 시작된 음악 은 곧장 속주로 내달렸다. 록 사운드에 얹어진 태평소의 요란한 선율, 기타의 화려한 스케일, 그리고 돌고, 돌고, 또 도는 청년, 그의 양발이 바닥에 닿을 새 없이 허공을 갈랐다.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한 스튜디오에 서 국악·연희 크리에이터이자 국악 밴 드 '오름새'의 보컬인 송창현(28)씨가 자 신의 자작곡 '떼루(Together)'의 연주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송씨는 지난 2021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촬영한 상모 돌리기 쇼츠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 았던, 일명 '냄뚜(namttoo)'로 알려진 국악인이다. 냄뚜는 냄비뚜껑의 줄임말 로, 상모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본인이 붙인 별칭이다.

그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살풀이, 사 물놀이, 창극 등 다양한 전통 무대에 올 랐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6일 한국국제 교류재단이 주최하는 '한국-중앙아시 아 문화의 날' 공연에 '오름새' 밴드로, 8.9일 남산골에서 열리는 판소리페스티 벌에는 '공중제비전'의 조연으로 무대 에선다.

그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무 대에 설수 있는 건 7살 때부터 닦아온 탄탄한 기본기 덕분이다. 송씨는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니던 어린이

28세 국악 크리에이터 송창현 7세부터 배우다 대학 때 번아웃 두바이 사막서 상모 돌리기로 반전 국악계 핀잔에도 "이건 내가 최초" 추석 연휴 국악밴드 · 공중제비 공연



송씨가 상모를 쓰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와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집의 방과 후 강사로 온 12발 상모 명인 이금조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다'며 국 악을 권하셨다"며 "이후 10여년 간 매 주 선생님의 연습실에 가서 상쇠(사물 놀이의 리더)가 해야 할 모든 걸 배웠다" 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쯤엔 상모 돌리기로 무대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올라 왔다. 그는 "얼굴을 조이는 상모 끈이 아팠고, 모자는 무거웠고, 선생님의 꾸 지람도 싫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그런 아 던 객원 주자들은 정식 멤버가 됐다. 쉬움이다사라졌다"고말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 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 입학했지만 오 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대학에 왔는데도 10년 간 했던 음악을 반복하고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며 번아웃이 왔다"며 "그런 채로 해군 사물놀이병으로 입대했고, 임무 수행 시간 외엔 1년 6개월 간 악기 연습 을하지않았다"고털어놨다.

반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2021년 두 다."

바이 엑스포 K팝 공연에 참여하면서다. 송씨는 주최 측의 요청으로 비보잉 등 다양한 분야의 댄서들과 함께 K팝에 맞 춘 상모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됐다. 공 연을 마친 후 댄스팀 동생들과 함께 놀 러 간 사막에선 12발 상모(초리가 긴 상 모)를 쓴 채 모르는 팝송에 몸을 맡기고 느낌 가는 대로 움직였다. 동생들이 촬 영해 준 영상은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 다.

'이게 국악이냐' '차마 못 보겠다'는 국악계 반응도 들렸지만 계속 쇼츠를 올렸다. 송씨는 "국악을 모르는 분들을 설득할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저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라는 게, 이 분야만은 제가 최초이자 최 고라할수있다는게기뻤다"고했다.

도전은 계속된다. 올해 그는 기타리 스트, 드러머, 키보디스트, 그리고 국악 인 친구들과 함께 국악 밴드 '오름새'를 결성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경 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서 창작곡 '떼루'를 연주했다. 결과는 대 상. 송씨는 작사·작곡을 도맡은 건 물론 이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꽹과리를 치 며 상모까지 돌린다. 상을 받은 5월 이후 꾸준히 공연 의뢰가 들어왔고 함께 했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이 젊은 국악 인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그는 "세계 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 스'(케데헌)에서 힌트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케데헌이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듯) 우리가 전 통의 모든 걸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사 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귀를 기울 이고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저도, 국악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최민지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국악 크리에이

터이자밴드오

름새의 보컬인

송창현씨가 블

랙핑크의 제 니가 부른 '라

이크 제니(like

JENNIE)'에

맞춰 춤을 추

며 상모를 돌

권혁재 사진전

리고 있다.

·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거생차이



Orthodontics **Implant** Periodontal Invisalign Surgery

- 치아성형 ■ 신경치료 응급환자 Veneer **Root Canal** Lumineers Treatment





www.naturadent.net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직장사고, 운동사고 착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DRX 9000-C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오픈 홍승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육사고 치료원들의) MD 엘리콧 시티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Certified DRX (디스크 강압치료 전문의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natura

dent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손흥민 '5경기 연속골' 불발

5일 애틀랜타 전 무득점 부앙가 후반 41분 결승골 LAFC 5연승 질주 상승세

손흥민(LAFC)이 5경기 연속 골에 도 전했으나 '한가위 축포'는 터지지 않았 다.

손흥민은 5일 LA BMO 스타디움에 서 열린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MLS 정규리그 홈 경기에 LAFC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풀타임을 소화했

기에 나서는 동안 8골을 몰아친 손흥 민은 특히 지난 4경기에서 매번 골맛을 1-0으로 꺾었다.

골), 21일 레알 솔트레이크전(1골)과 27 일 세인트루이스 시티전(2골)에서 골 퍼레이드를 펼쳤다.

그 5경기 연속 골 기록을 쓸 수 있었으 나 이날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

손흥민의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8월 LAFC에 입단해 앞서 리그 8경 LAFC는 후반 41분 터진 드니 부앙가 다.

의 선제 결승 골에 힘입어 애틀랜타를

리그 5연승으로 승점 56을 쌓은 지난달 13일 샌호세 어스퀘이크스 LAFC는 두 경기를 더 치른 3위 미네 전(1골)과 17일 레알 솔트레이크전(3 소타(승점 58)를 바짝 뒤쫓았다. 애틀 랜타는 승점 27로 동부 콘퍼런스 15개 팀중14위에 그쳤다.

부앙가는이번 시즌 MLS 24호 골을 손흥민은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리 터뜨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다. 경기 후 축 구 통계 전문 풋몹 평점에선 부앙가가 8.1점으로 양팀 최고점을 받은 가운데 손흥민은 5번째로 높은 7.5점을 기록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괴물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의 역투 모습.

[John E. Sokolowski-Imagn Images·로이터]

블루제이스 2연승 … 양키스 탈락 위기

ALDS 2차전

예새비지 호투, 게레로 만루포 시애틀-디트로이트는 1승 1패

'특급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5⅓이 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11탈삼진으로 막았고, '괴수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 레로 주니어(이상 토론토 블루제이스) 는 시원한 만루포를 쏘아 올렸다.

토론토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 론토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메이저리 그(MLB)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ALDS·5전3승제) 2차전에서 뉴욕 양 키스를 13-7로 꺾었다. 1차전(10-1)에 이어 2차전도 잡은 토론토는 1승을 추 가하면 2016년 이후 9년 만에 AL 챔피 언십시리즈(ALCS) 무대에 오른다.

2차전에서 토론토는 예새비지의 호 투로 기선을 제압했다. 2024년 신인 드 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0순위로 토 론토에 지명된 예새비지는 올해 9월 빅 리그에 데뷔했고, 3경기에서 1승에 평 균자책점 3.21(14이닝 13피안타 5실점) 을 올렸다.

예새비지가 마운드를 지키는 동안 출루한 양키스 타자는 1회초 1사 후 볼 넷을 얻은 에런 저지, 단 한 명뿐이었 다. MLB닷컴이 '하늘에서 내려와 타 자를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극찬한 예 새비지의 스플리터에 양키스 타자들 은 연거푸 배트를 헛돌렸다.

예새비지는 삼진 11개를 잡으며 역 대 토론토 투수의 포스트시즌 단일 경 기 최다 탈삼진 기록(종전 8개)을 바꿔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놨다.22세 69일의 나이에 MLB 포스트 시즌 마운드에 선 예새비지는 1975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존 칸델라리아(14탈삼진·21세 335일) 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가을 무대에서 10탈삼진 이상을 기록 한 투수로 기록됐다.

토론토 타선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19승을 거둔 양키스 선발 맥스 프리드 (3이닝 8피안타 7실점)를 두들겼다.

게레로 주니어는 4회 1사 만루에서 윌 워런의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을 넘 어가는 만루 홈런을 쳤다. MLB닷컴 은 "토론토 타자가 포스트시즌에서 만 루홈런을 친건, 이날 게레로 주니어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시애틀 매리너스는 워싱턴주 시애 틀 T모바일파크에서 벌인 ALDS 2차 전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3-2로 누르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 균형을 맞

시애틀은 호르헤 폴랑코가 4회와 6 회, 상대 에이스 태릭 스쿠벌을 상대로 연타석 솔로포를 터뜨려 2-0으로 앞 섰다. 디트로이트는 8회초 1사 1루에 서 라일리 그린의 타구를 시애틀 1루수 조시 네일러가 놓쳐 1,2루 기회를 잡았 고, 스펜서 토켈슨이 우선상으로 흐르 는 2타점 2루타를 쳐 2-2 동점을 만들 었다. 8회말에 승부의 추가 시애틀 쪽 으로 다시 기울었다.

시애틀은 1사 후 칼 롤리의 우익수 쪽 2루타와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좌익 수쪽 2루타가 연이어 터져 결승점을

사무장 김 진 주 Jinju Kim



김주형 공동 11위, 모처럼 호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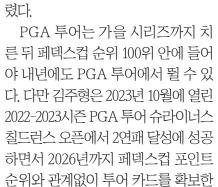
PGA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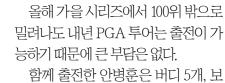
김주형(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총상금 600만달러)에서 올 시즌 두 번째로 좋 은 성적인 공동 11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5일 미시시피주 잭슨의 잭 슨 컨트리클럽(파72·7461야드)에서 열 린 대회 나을째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합해 2언더파 70타를 치면 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적어냈

한 타 차이로 톱10에 들진 못했지만, 올시즌 두번째로 15위 안에 들면서 자 신감을 찾았다. 김주형이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건 올해 2월 AT&T 페

블비치 프로암의 공동 7위다. 그는 이 번 대회 결과로 페 덱스컵 포인트 순위 를 99위에서 7계단 오른 92위로 끌어올





함께 출전한 안병훈은 버디 5개, 보 기 2개를 합해 3언더파 69타를 쳤고,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9위 를 기록했다. 안병훈의 페덱스컵 포인 트순위는 기존 73위에서 78위로 떨어

우승은 미국의 스티븐 피스크가 차 지했다.

올해 PGA 투어에 합류한 피스크는 올 시즌 22차례 대회에서 톱10에 단 한 번 이름을 올릴 정도로 미미한 성적을 냈으나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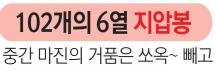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대 내장내 체험가능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지압봉 기계]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mark>인체 공학적</mark>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mark>위치표시</mark>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2,900 \$2,300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게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매트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건식 반신욕기

\$1.**49**9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3 간단 편리한 작동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수 없는 좋은 가격~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8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NURIEYE-5800 **Hand/Wrist Massager** Q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5150_+\$**129**

빅빅 세일가 (

눈 마사지기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에어백 마사지 ·Shiatsu 지압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온찜질 / 진동 피로한 눈·뻑뻑함 ·USB 충전 •내장 스피커 눈꼽낌·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깊은

유도



















교통사고 치료 전문

了 MERCY 멀시착신경 CHIROPRACTIC 멀시착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한국일보 옆 건물 2종)

703.256.3005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Sung Hwang&Kim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mark>피터 황 변호사</mark> PETER K. HWANG, ESQ.



<mark>폴 킴 변호사</mark>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편한나라 척추신경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П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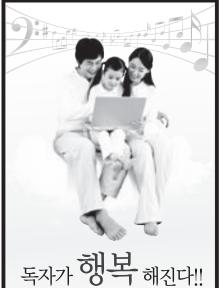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충족을 걸으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입니다"



Kmediarods.com

① 위성틴 중앙일보

WBS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企图

571-239-605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SILLE)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세일즈분야, 영어/한국어가능 출장업무필수, 운전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직원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401K,유급병가/휴가,보험등 자격요권: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 파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 설치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VA, MD, DC

전화: 703-447-4683 엘리곳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풀&파타임. 배깅만하실분도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지역비빔밥캐리아웃같이일 하실분구합니다. 남녀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스시맨,스시보조(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십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뉴그랜드마트근처싱글홈 2층욕실딸린큰방,주방,가구,인터넷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입주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전체 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운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대학가까운싱글홈이층방렌트,즉시입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꼭관심 있는 분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케어피플홈헬스(센터빌) Accounting / Bookkeeping (FT 유경험자)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모집RN,LPN(풀타임,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 경험자도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VA&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업무경험자우대하며,체 계적인교육과안정적인근무환경을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보장 문의:703-225-5500

이메일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보실분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일한경력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조정가능(풀타임) 급여:인터뷰후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이민법사무실,I-140파일, 패러리걸(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경력자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직원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40k-50k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또는보험등유경험자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Receiptionist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703-574-0528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경험자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703-258-4356

에난데일일본라면가게에서 파타임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 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주실분,파타임카운터케쉬어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 1 & 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 - 7AM) 나이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교정 ●발치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bigcirc 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중앙일보**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설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1명, 그로서리매니저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테일러샵에서 바느질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화,목,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우대,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토요일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하시는분, 세탁, 집안정리

-맥클린(VA)지역

-주5일또는파타임(시간당25불) -하루6-7시간정도,12시-7시,12-8시 ▶703-887-1037

19개월남자아기돌봐주실분구합니다. 입주가능또는출퇴근(풀&파타임) 410-961-3012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체육관뒤조용한싱글홈전체렌

트합니다.(웃슨 하이스쿨 학군) 방4,화2.5,차고2 703-350-2278

스프링필드싱글홈(애난데일부근) 방3,화2,즉시입주가능\$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넓은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타운하우스\$3,0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1,496sqft 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덱,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비엔나역타운하우스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베이스먼 트\$3,200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화2.5,차고1,End Unit, 편리한로케이

2.센터빌타운홈\$3,000 방3,화2.5,차고1,End Unit,업그레이드많 이함,굿로케이션

3.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화2.5,2 assigned 주차, 밝고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교통 편리

▶703-919-0472

470-485-1875

션, 잘관리된집

패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렌트 \$3,500

방3,화3.5,2car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 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렌트

센터빌롯데근처콘도전체렌트합니다. 방2,화2.5,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콘도 \$1,500 방1,화장실1,고급스런 나무 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 부엌,계단없는 1층 나무가보이는 넓은 발코니,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2,1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콘도, 13층으로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 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같은콘도, 넓은새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리빙룸, 리모델한화장실, 새페인 트,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콘도 \$1,700 방1,화장실1,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세탁기,건조기,새 화장실,나무 마루 거실,새페인트,넓은 발코니,코스트코에서 1분거리,즉시 입주가능

애난데일 H마트근처콘도전체렌트 방1,화1,주차2,완전리모델링,모든가전 제품새것,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자이언트, 1,600sf,RT267/28, 최 고교통요지

▶571-239-6054

703-477-3114

1.옥톤싱글\$3,600,방5,화2.5,차고 2,2.5acre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센터빌stonegate,콘도렌트\$2,100 방2,화2,2층1100sqft,securitygate

망 2, 와 2, 2층 1 1 0 0 s ▶ 571-239-6054

방렌트

애난데일H마트옆밝고조용한콘도방하나 렌트, 남자분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큰싱글홈 밝고큰 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교통편리 롯데1분 한강식당 1 분 거리,입구별도,주차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로튼(스프링필드) 조용한주택가 1층 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703-478-4523

스프링필드지역조용한싱글홈 방렌트, 간단한취사,가구완비,인터넷,학생또는직 장인여성환영 571-286-2439

5/1-280-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곳) 조용한싱글홈베이스먼트방렌트 워크아웃, 간단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환영 703-750-2795

GMU 근처조용한동네 싱글하우스 욕실딸 린큰방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예촌앞타운하우스방렌트합니다. 가구완비,취사가능, 직장인,학생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 방하나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센터빌CVS근처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703-508-5405 (Julia Jin)

페어팩스방렌트또는 하숙하실분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모두별도, 편리한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 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H마트근처싱글홈 1층 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 환영\$1,200 즉시 입주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순복음교회앞주택지하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전체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싱글홈반지하방렌트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근처타운하우스마스터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웨스트스프링필드하이스쿨근처)워크아웃타운홈베이스먼트전체렌트합니다.가구일체/유포703-887-8428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1,200sqft, 룸3개,화1,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4Room\$1,6001사무실 \$500(전기, Wifi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챈틸리급매타운하우스\$300,000 방2,화1,아담한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589,000 방3,화2.5,차고1HMART근처 29/28/66Braddock

▶571-239-6054

우드브릿지타운홈\$410,000 방3,화31/2,잘관리된밝고환한집,펜스 가있는 뒷마당, 3층구조, 업그레이드된지 붕과창문,히팅&에어컨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밸리컨트리클럽, 헤이마켓력셔리싱글\$1,699,000 1에이커숲속,6700 sqft, 방5, 화5.5, 3차고. 야외리조트스타일,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 레스롬,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 우드 바닥

\$460K 업그레이드(야외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덱, 음향시스템등) 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싱글홈 \$1,295,000 방4,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싱글홈 \$419,000 방4,화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화장실 4+1,차고1,새집,편리한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싱글홈\$1,075,000 방4,화장실2+1,차고2 포토맥에위치한 잘꾸며진집,좋은가격 2. Nottingham타운홈\$349,900 방4,화장실3,최근에전부새로고쳤으며,

HOA가 없는집 3. Elkridge 타운홈\$625,000 방3,화장실 2+2,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화장실3+1,차고2 13년된 벽돌로지어진고급타운홈, 5.엘리컷시티싱글홈\$820,000 방5,화장실3+1,차고2,밝고이쁘게잘꾸

며진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구조와잘가 꾸어진집, 벽돌, 마루바닥 2. 패어팩스싱글홈\$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싱글홈\$1,8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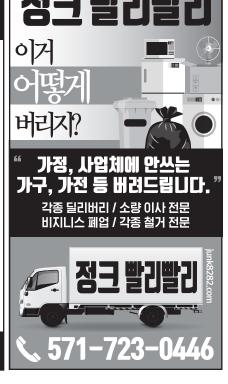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집, 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유닛. 아주 밝 고이쁘게잘꾸며진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LOFT835 saft, 전부리모델링,나무마루 2. 맥클린콘도 \$40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화2,TopFloor엔드유닛, 업데이트되고 잘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싱글홈\$770,000 방3,화3.5,차고2,업그레이드부엌,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화3.5,차고2,최근에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집, 넓고고급스러운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화2.5차고1,좋은동네,좋은학군,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챈틸리새 빌더홈콘도(2025년 완공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2025년 완 공예정)방3,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 새 빌더홈(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단층집으로넓은백야드0.3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교체,계단없슴. 2. 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절감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DC)\$150K DC내위치, 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스파살롱사업체 매매

(레스톤/헌돈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좋고지속성장가능

-월임대료&수도세없음**

-6개 헤어부스+2페디큐어부스+2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 9월 16일(화) 개강 한국식쪽집게수업,온라인수업병행,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 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350(교재비\$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악기별개인맞춤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테이블,쇼케이스그림,유로피안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사용해상태좋음, 필요하 신분께저렴하게드립니다. 703-945-2991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 예상문제/한국 · 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시니어) / 주1회90분수업 -기초반/중급반/고급반

▶문의: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합니다.(면대면 및 줌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중,고등학교준비반)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고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inyeolchoi@hotmail.com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부엌,화장실,에디션,덱,팬스,지 붕제너럴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건축주방&욕실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옴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관 심있으신분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모든샘풀가지고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 우드/타일,주거용/상업용한번시공은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뚫음,상하수도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냉동,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8282각종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비지니스폐업,각종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 귀국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시내 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화물배송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571-594-4080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문제를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집수리/가게수리LLC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전문 703-340-5858 (VA) 443 -980 -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페인트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 Door 설치, MD/VA/DC지역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 피니셔(페인트, 스테인)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리모델링</mark>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업 범망애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ATLANTA)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귀국이삿짐

귀국,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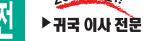
교려통운

www.HDmovingusa.com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K14, K18, Setting 전문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NMLS #: 2425871)

함께 하세요!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703-813-8949 Huundai 703-813-8150~5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o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A-MD-D.C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지하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우주 Mechanical, LLC

24 hours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301-222-3277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Young Lee

^{무료 방문}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at's the way it goes; 별 수 없지

(Two friends are having lunch…) (친구 둘이 점심을 먹으며…)

Merri: I haven't talked to you for a while. How's your

메리: 너랑 얘기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 직장은 어때?

Barbra: It's been great until yesterday. Ilost out on a 메리: 할수없지 promotion.

바브라: 어제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승진에서 밀 려났어.

Merri: Oh how did that come about?

메리: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어?

Barbra: I don't have enough experience. 바브라: 경력이 부족해서 그래.

Merri: That's the way it goes.

Barbra: I know but I wanted it so much.

바브라: 알아. 그래도 꼭 승진하고 싶었는데.

Merri: Keep working hard and you'll get it the next time.

메리: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다음 번에는 승진 정말 좋지 할거야.

Barbra: I'm thinking about looking for another job. 바브라: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 Merri: Why? You said you like your job. Don't run 다. 얻지 못하다.

away from it. 메리: 왜? 너지금 직장 좋다며. 도망치지 마.

Barbra: Maybe you're right. I do like the job.

기억할만한 표현

▶ *lose out (on something):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

"She lost out on a scholarship because her grades weren't good enough." (그녀는 성적이 모자라서 장학금을 못 탔어요.)

바브라: 네 말이 맞을 지도 몰라. 이 직장이 좋긴 *come about: 생기다. 일어나다.

낱말퀴즈

1			2	3			4	5
6	7	Т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달빛.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2)혼 인으로 맺어진 두 집안의 사이 (4)수삼을 쪄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 (6)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불이 잘 붙으므로 예전 에는 여기에 불을 붙여 등불 대신 이용하였다 (8)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빗물 (10)능선을 따 라 산을 걸어, 많은 산봉우리를 넘어가는 일 (11)두 다리를 내뻗었다 오므렸다 하며 몸부림 치는 일 (13)개를 벼슬아치로 부르는 말. 돈만 있으면 개도 ~라 (15)목축을 업으로 삼아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사는 민족. 중앙아시아, 몽골, 사하라 등의 건조 · 사막 지대에 분포한다 (17)명절이나 큰일이 바싹 다가온 때 (19)철재 로 된 건축물의 뼈대 (20)이마로 무엇을 세게 받아 치는 짓 (22)예전에, 통상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 다. ~ 자락 (24)땅속에 묻어 두어 밟으면 폭발 하죠 (25)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신체기능 조절 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이죠. 에이, 비, 시, 디를 비롯하여 30여 종이 있다 (26)말이나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세로열쇠

(1)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의 우승자에게 씌워 주 던 관. 승리하거나 남보다 앞섬으로써 가지는 영 광스러운 명예 (3)돈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생 기는 일. 신이시여, 벌을 주시려거든 꿀벌을 주 시고, 벼락을 내리시려거든 ~을 내려주소서 (5) 강물이 운반하여 온 모래나 흙이 쌓여 이루어진 편평한 지형 (7) 놋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요령 (8)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9)논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하여 둑이나 방축 따위의 밑으로 뚫어 놓은 구멍. 평소에는 ~ 문을 막아 놓고 필요할 때 ~ 문을 열어 물을 댄 다 (10)간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그릇 (12)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 우는 나무. 농업은 자립적 국민 경제를 세우기 위 한 ~이다 (14)신라 선덕 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15)무덤 속에서 나온 뼈 (16)일반 민가 에서 묵음 (17)단군이 즉위한 해를 원년(元年)으 로 하는 기원 (18)무거운 물건을 얽어맨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19)철없 는 어린아이 (21)생명을 위협하는 타격 (23)어 린아이의 작은 이불

스도쿠

2	昬		品	扫	ļя		돌	ļΥ
대				品				뉴
দ	되		∠	ļ⊼	訲		룬	乾
	눔	대	中		凸	눔	や	
		40				日		
	Υ	쟘	면		옼	ŀя	唱	
怀	Kło		4	市	첫		흫	귣
Τ̈́				扫				K
잒	ᇮ		12	궄	łΥ		纶	룡
자	용		12	굴	łY		윤	룡

	1	5			3			
2		7	1	4			5	
		9		7	6	1		
				1			2	7
1		3		6	9	5		4
5	7	6					3	
			6	5	4		1	3
		4		3				6
6	3	1	8	2	7	4	9	

9	١.		×
	1	_	Υ
- 1	۱٠.	1	il.
	Ľ	1	٩.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S	6	7	L	7	8	ı	3	9
9	L	7	L	3	6	Þ	S	8
ε	ı	8	7	S	9	7	6	L
l	ε	6	2	8	Þ	9	L	S
7	8	S	6	9	L	ε	2	ı
L	2	9	S	ı	3	8	Þ	6
7	Þ	ı	9	L	S	6	8	3
6	S	8	8	7	L	L	9	7
8	9	L	3	6	7	S	ı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위성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지불방법 Check Bill Credit Card
(Subscription Fee)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종류 VISA Master Amex Discovery 카드 먼호 EXP. DATE: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옥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상담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쉬 & 사라류 박사 공저 Su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최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 www.worldpav.com

Info@meridianwish.com

프로모션으로 리버트 뱅크카드와

월드페이가

이루어

사장님의 꿈을

드리겠습니다.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대표 : 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전자상거래 & 금융) (인대)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면연력 항암효과

까연산삼의 효력 · 5~20년 \$600 · 20~30년 \$1,000 ·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213)800-3662 (213)407-4524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치료로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으로 마비됐던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품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소 작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치료전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Tel. 213.**385.3304** Cell. 213.**503**

민물장어 판매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832)605-4890 - (281)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90020 | TEL: 213-272-6031



CORE Physical Therapy&Rehab

통증 재활물리 지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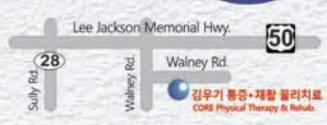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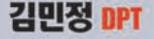


- · 목, 허리 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언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